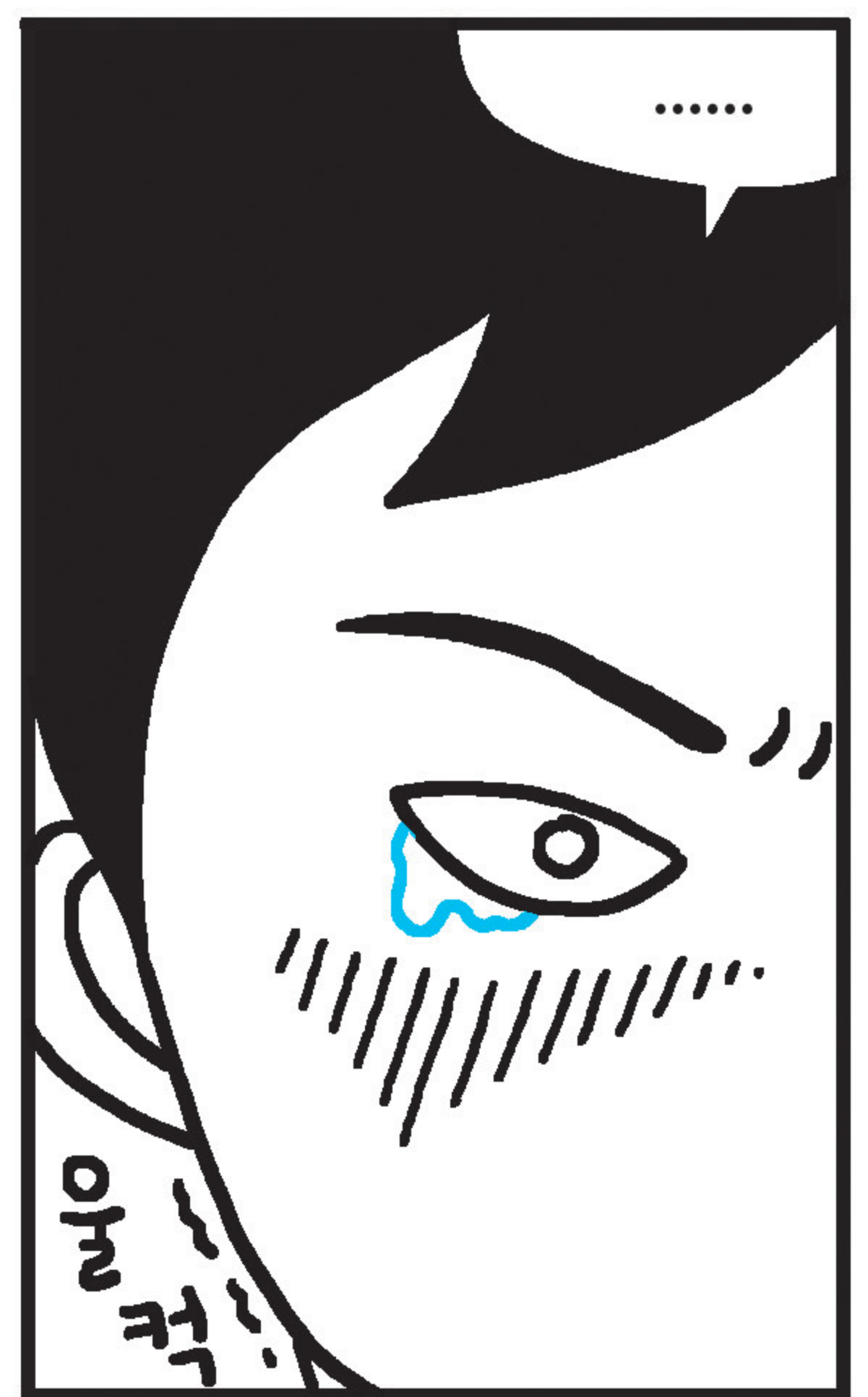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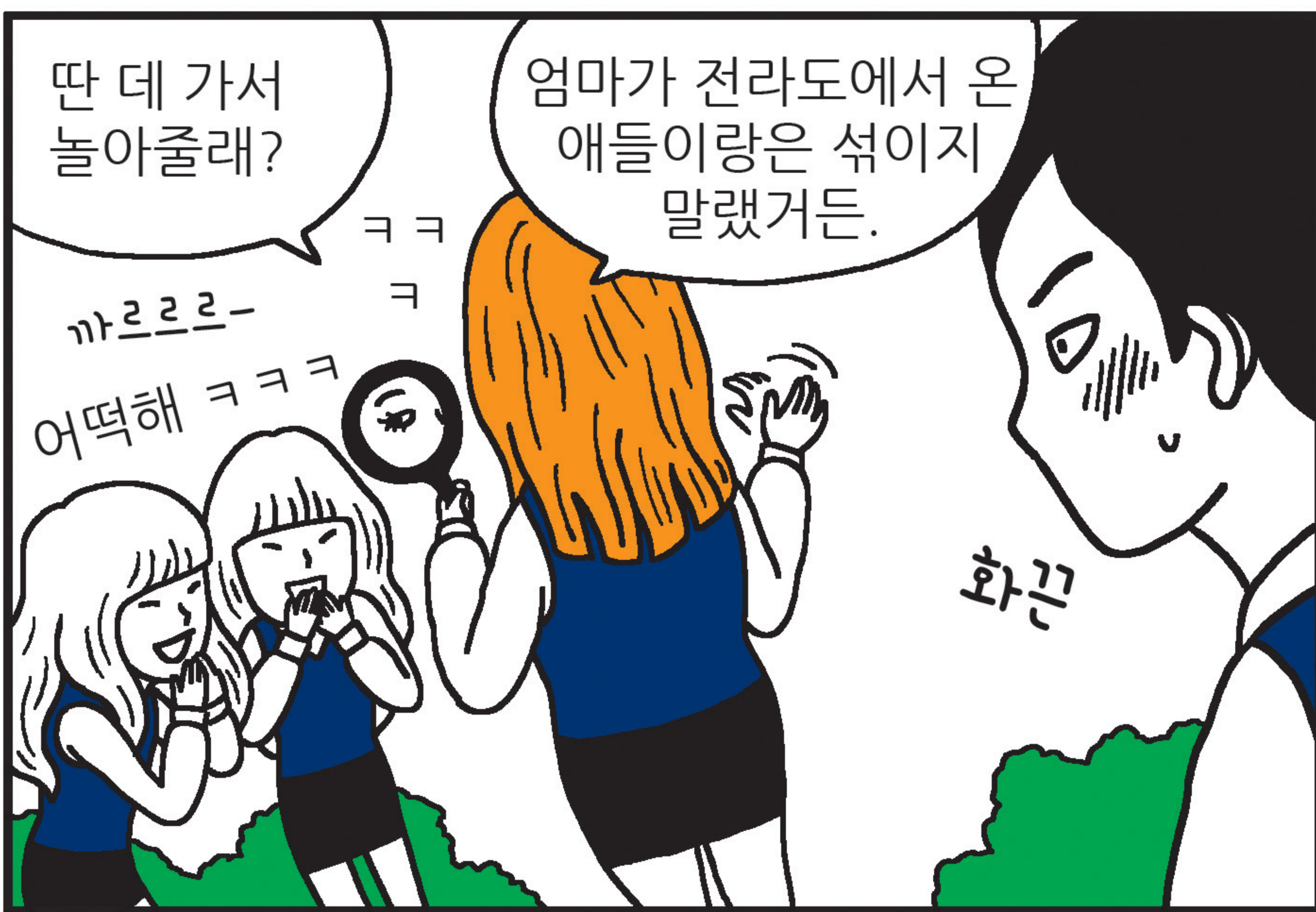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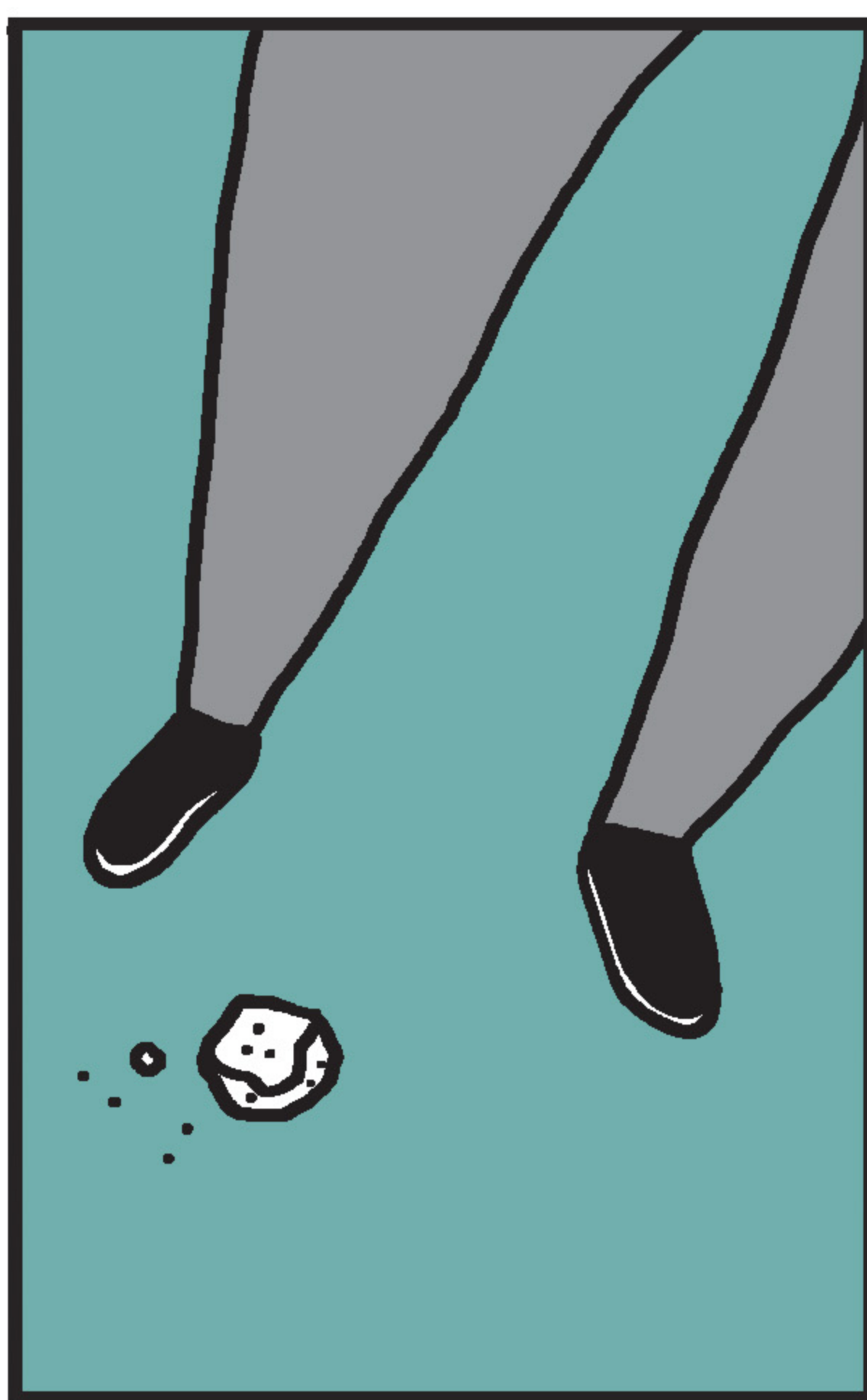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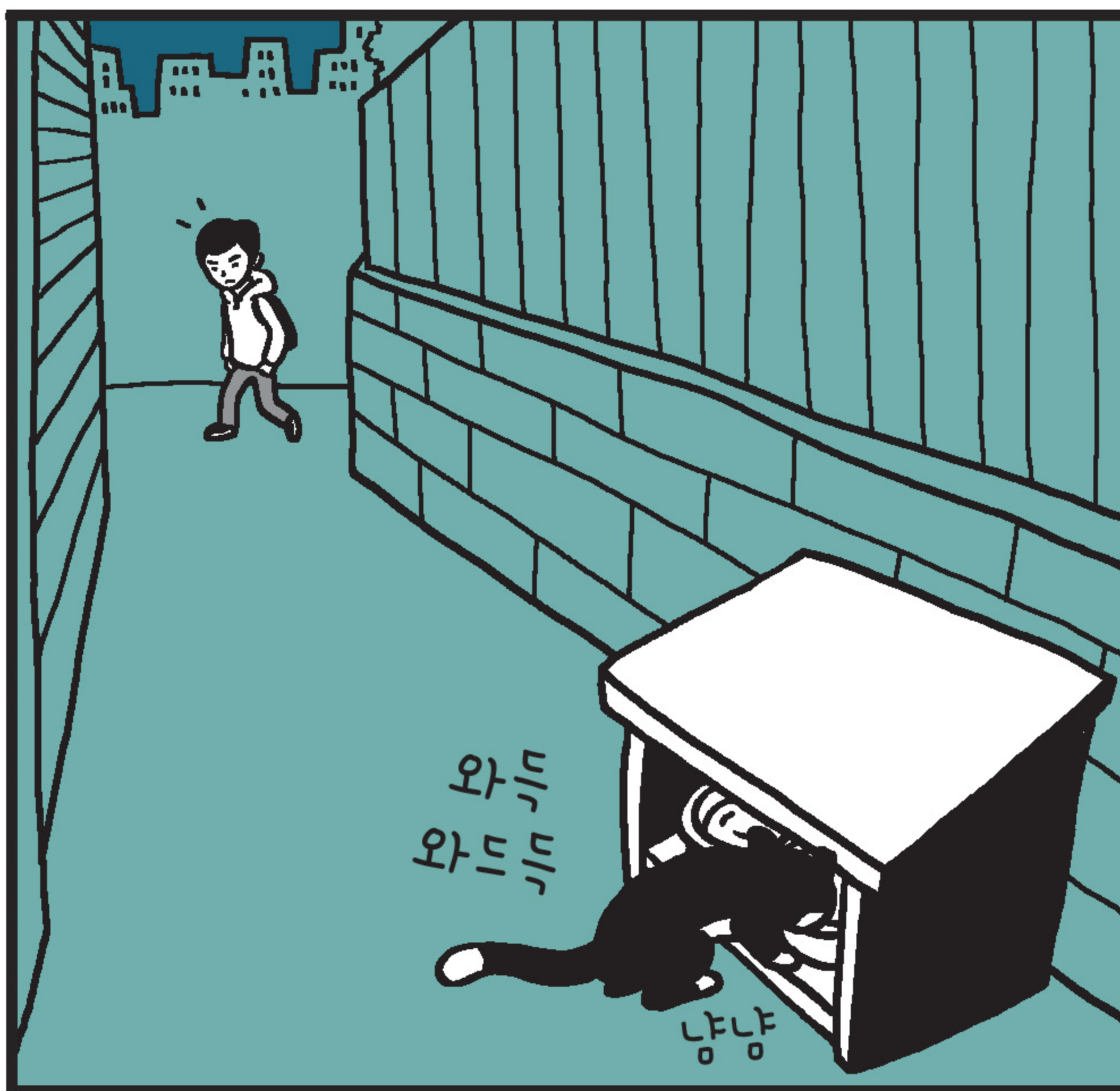
협오표현을 멈추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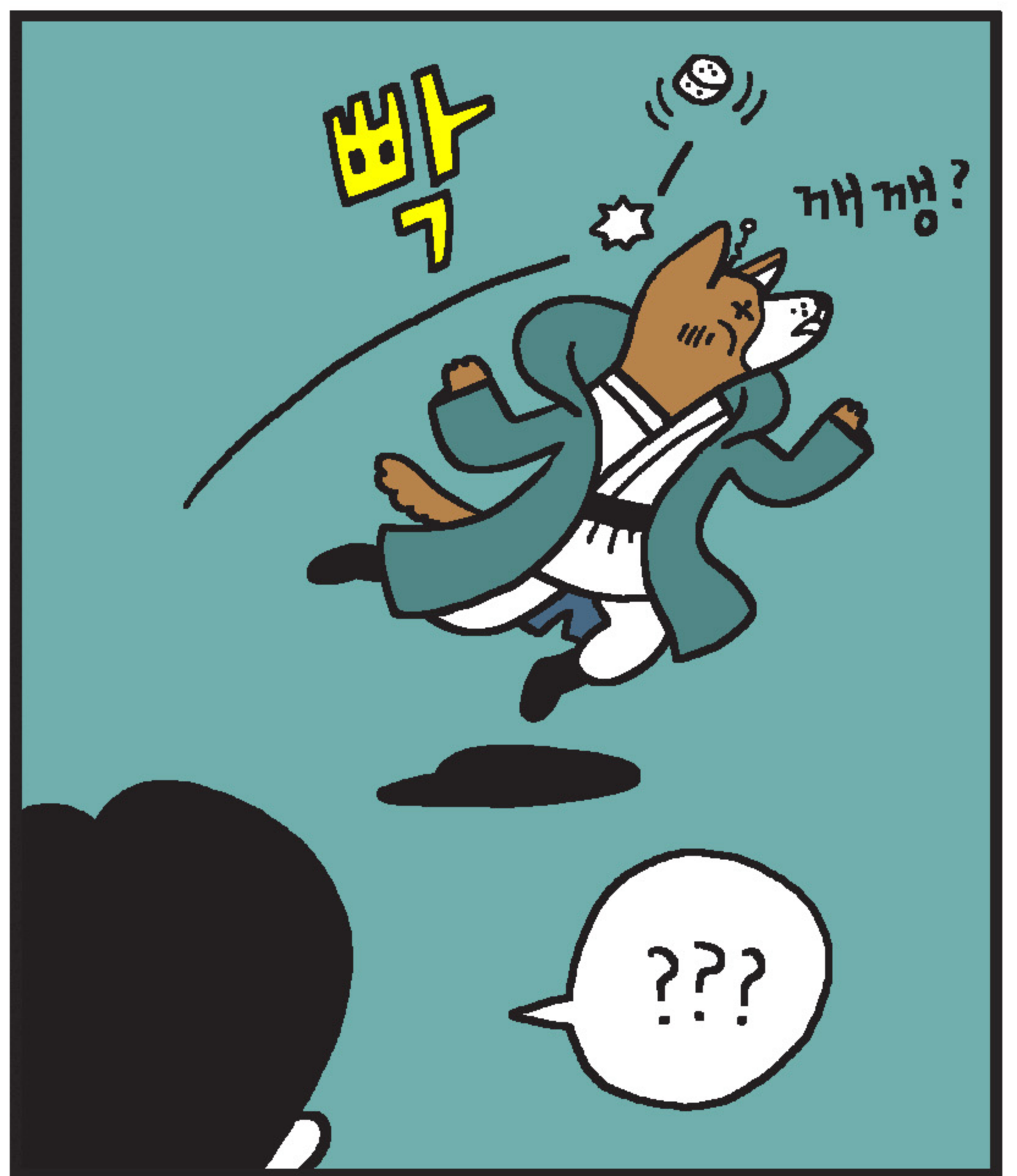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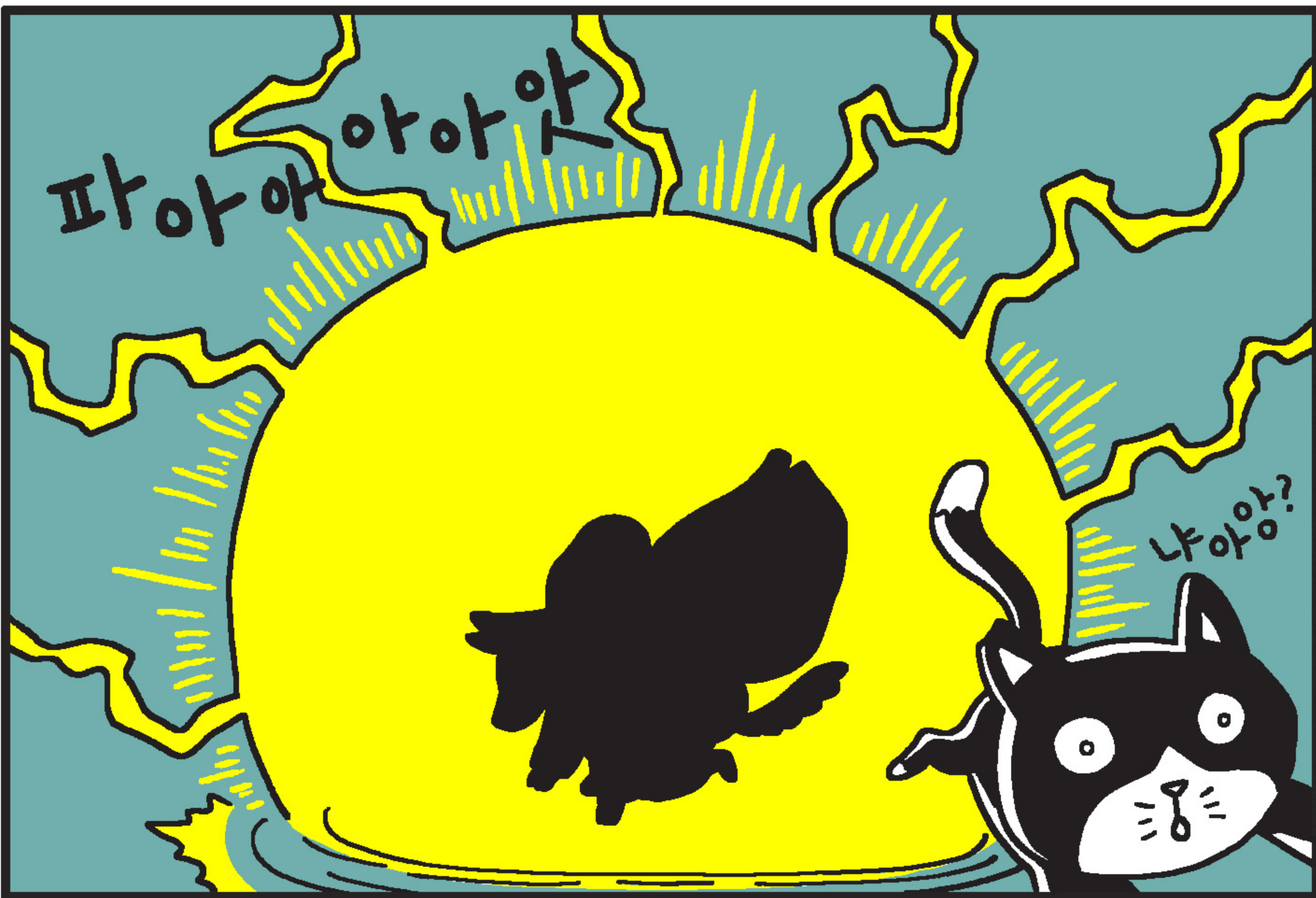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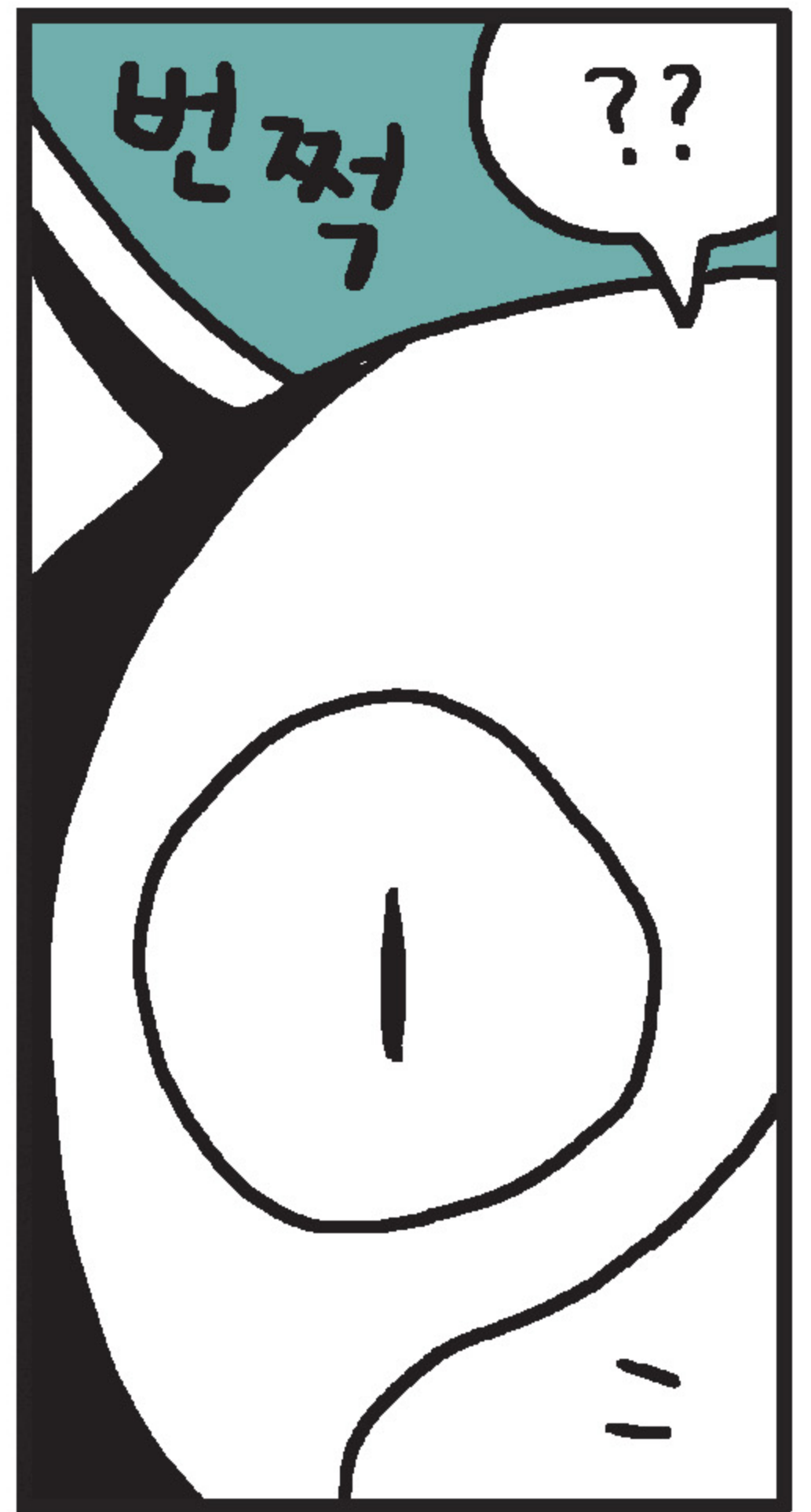
그림 정우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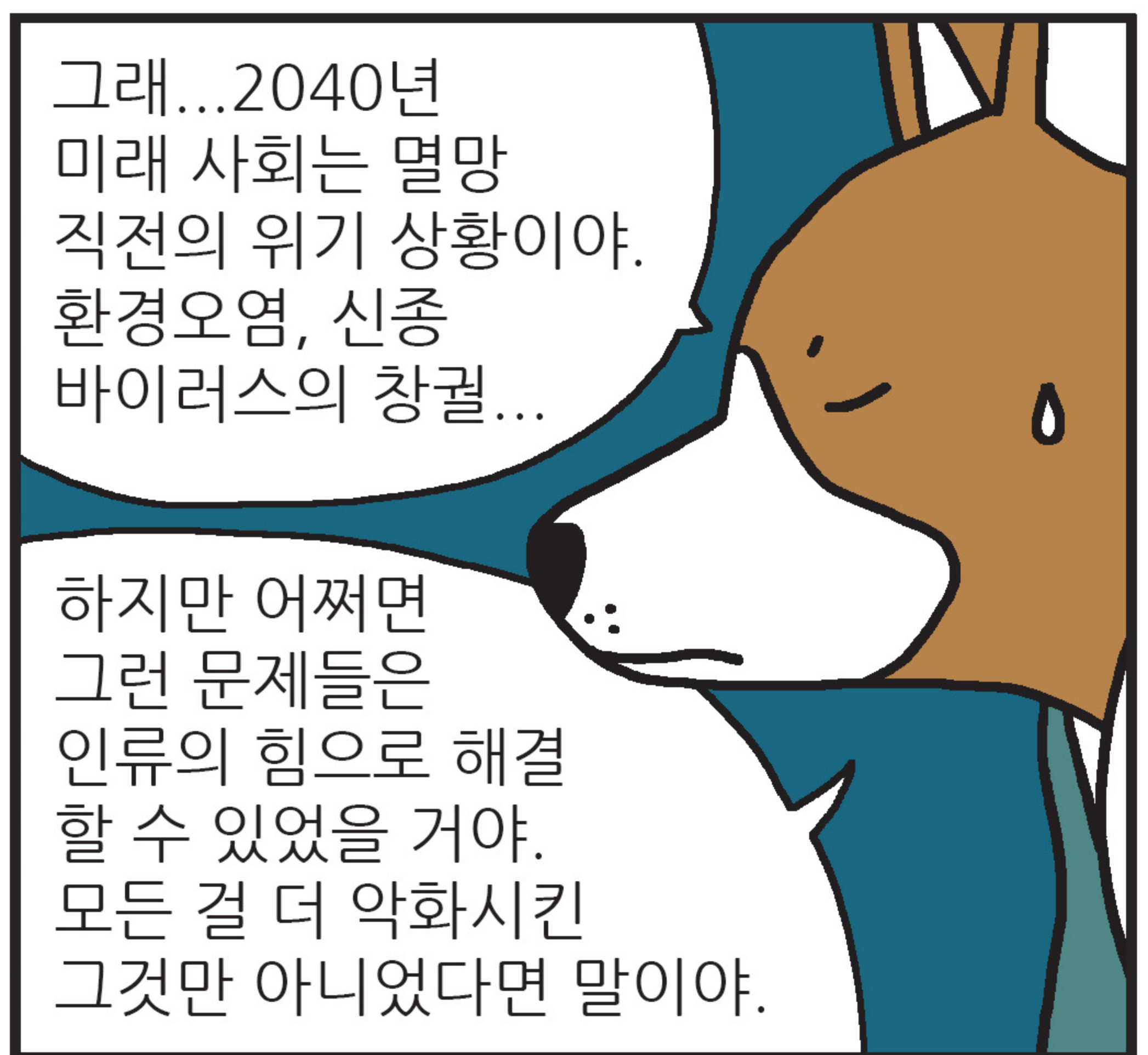


국가인권위원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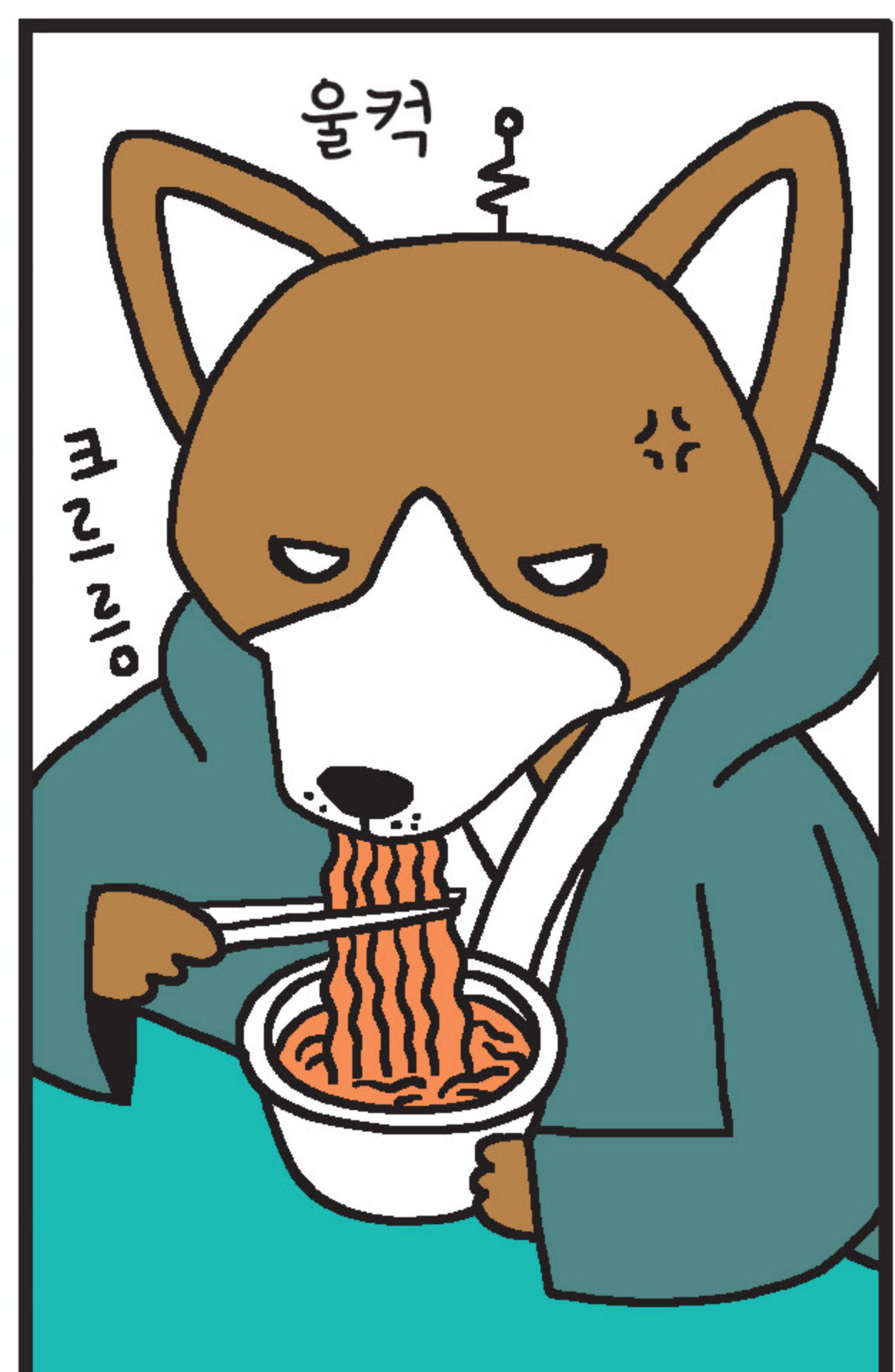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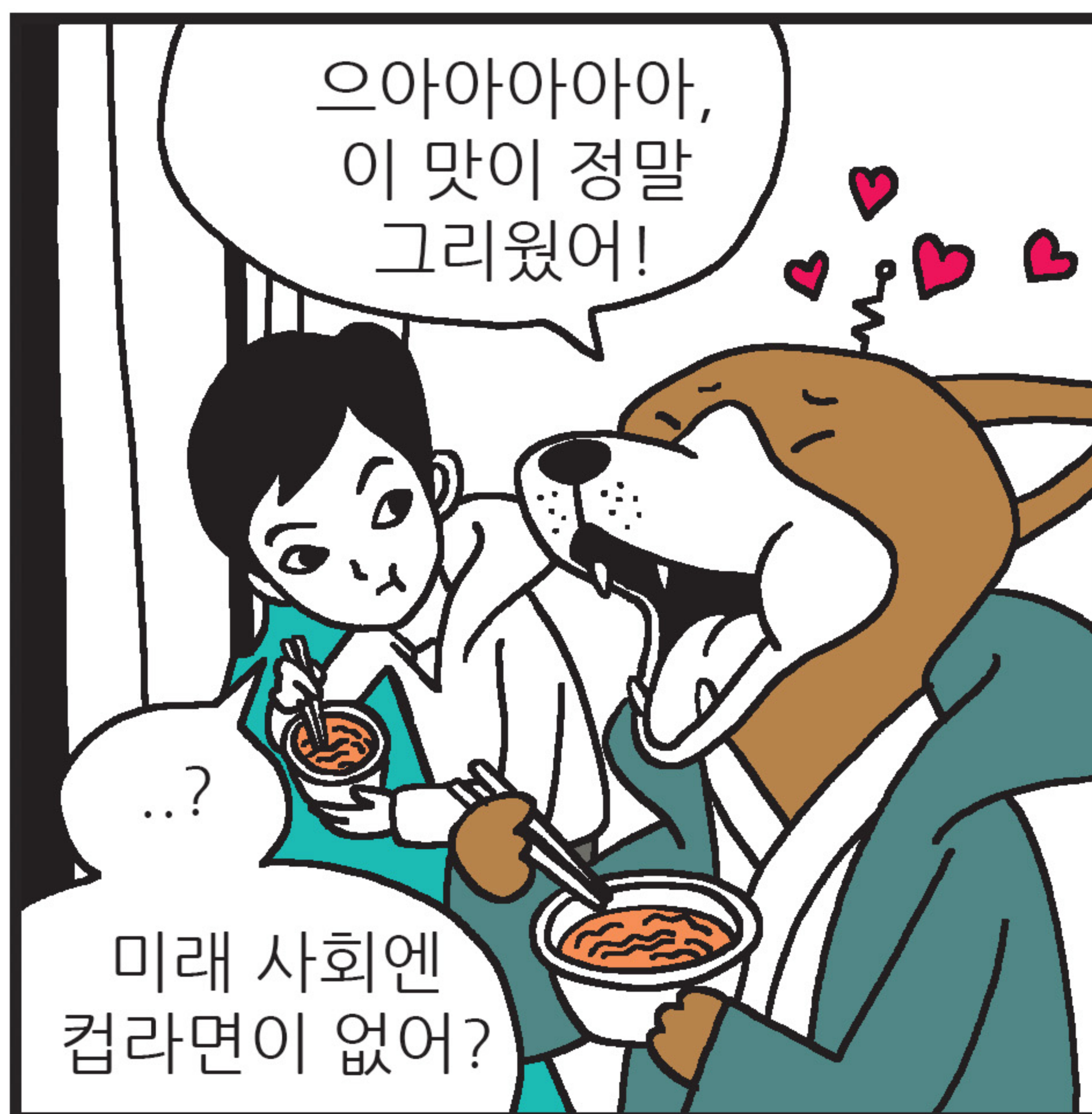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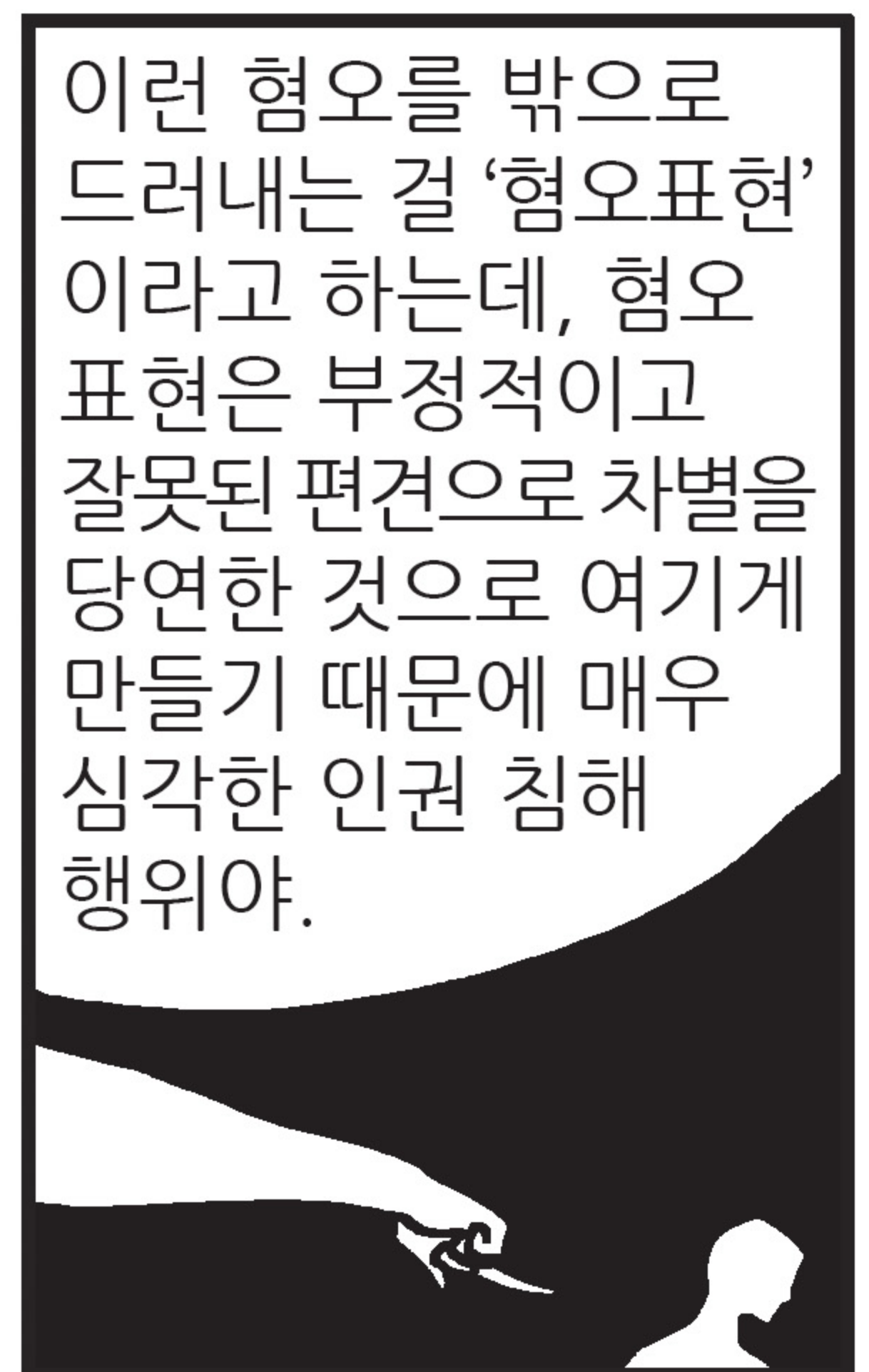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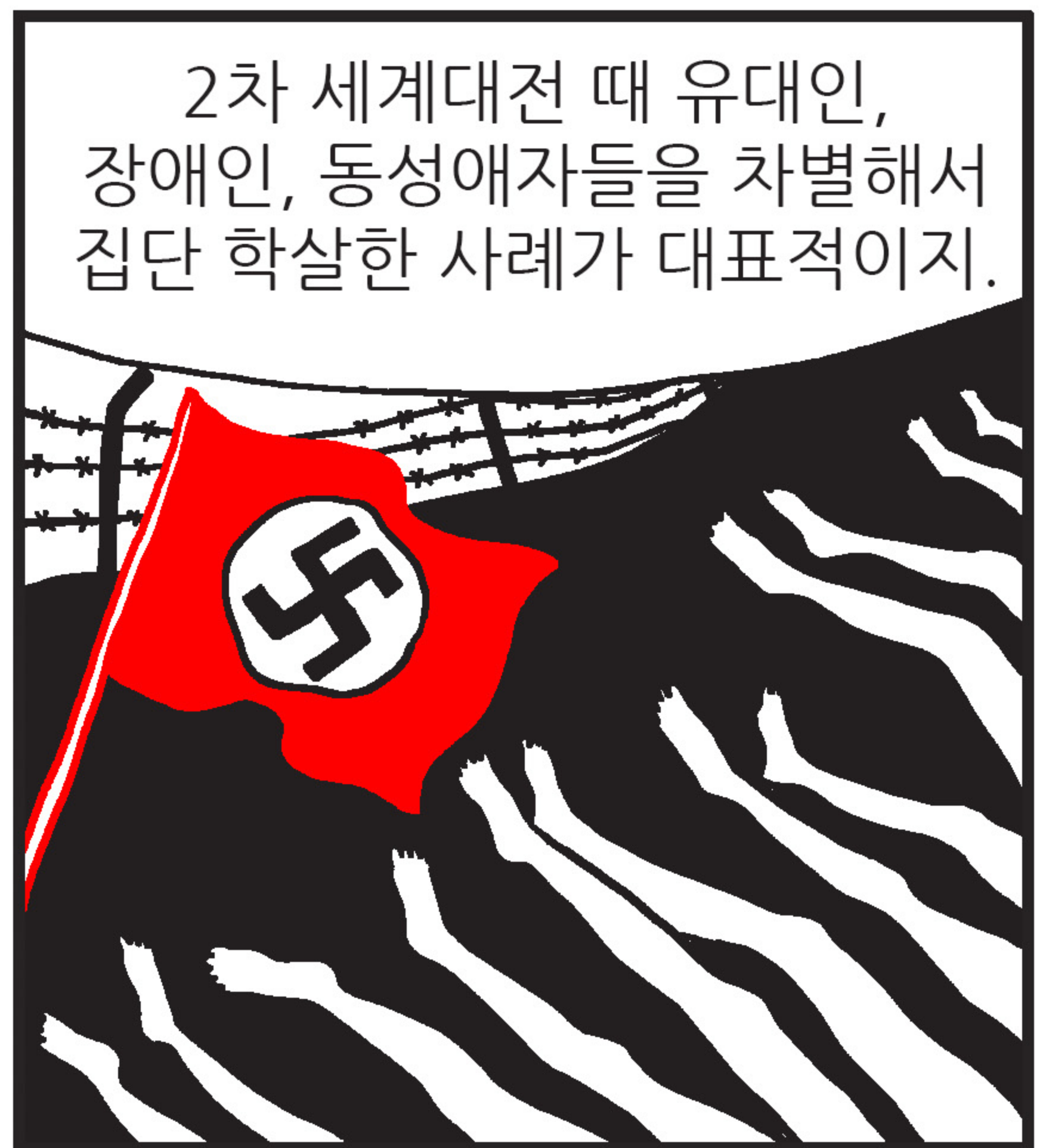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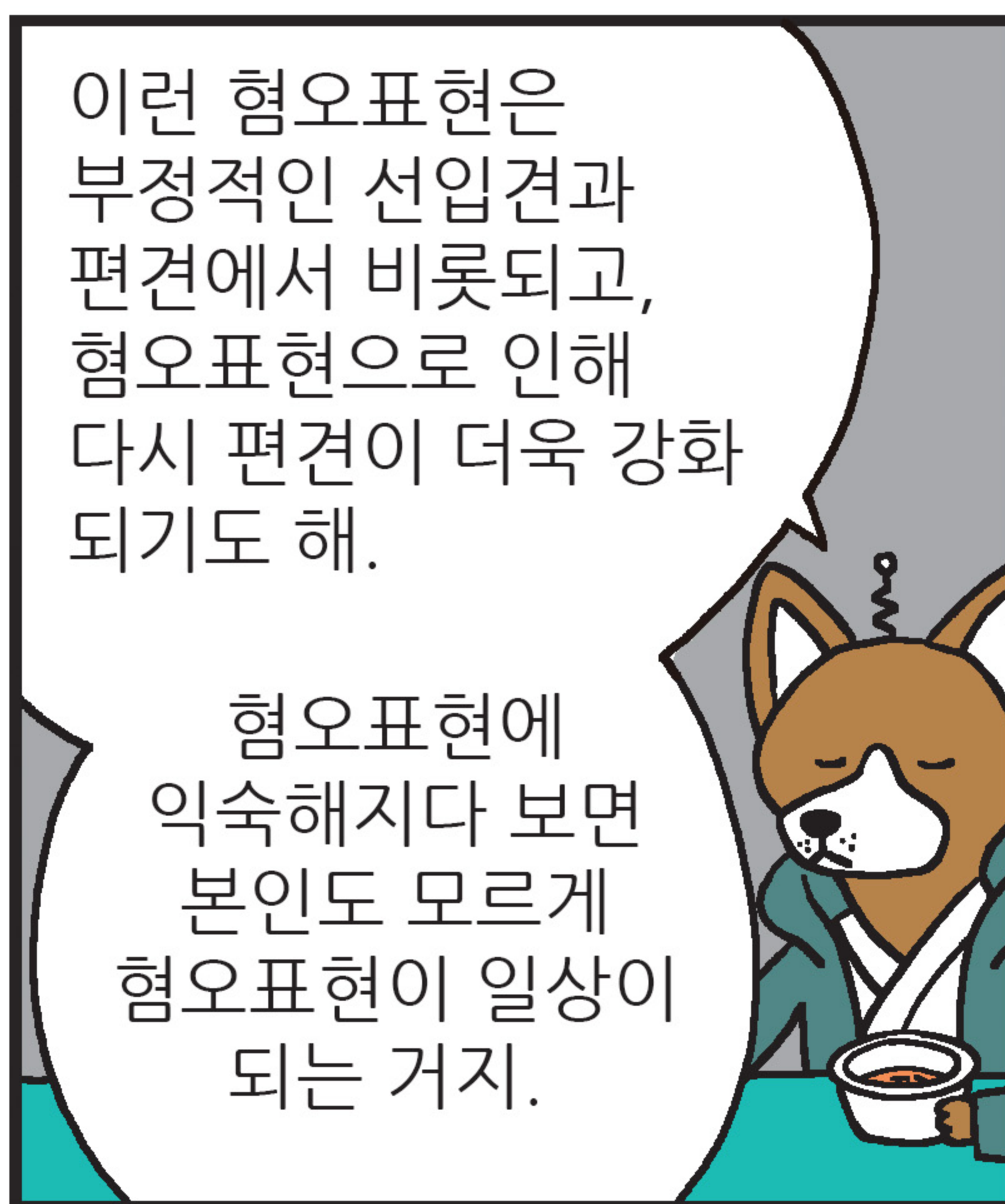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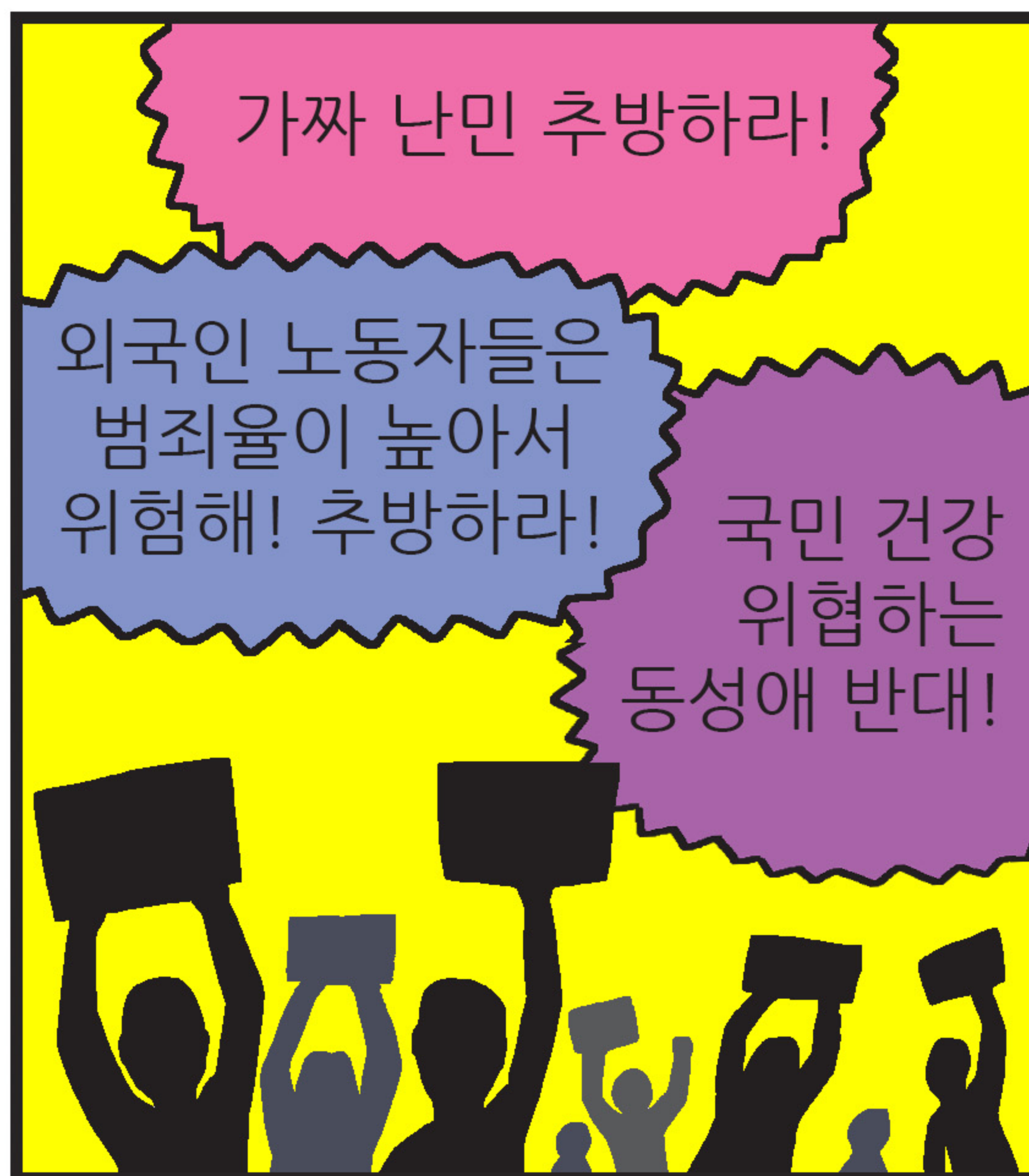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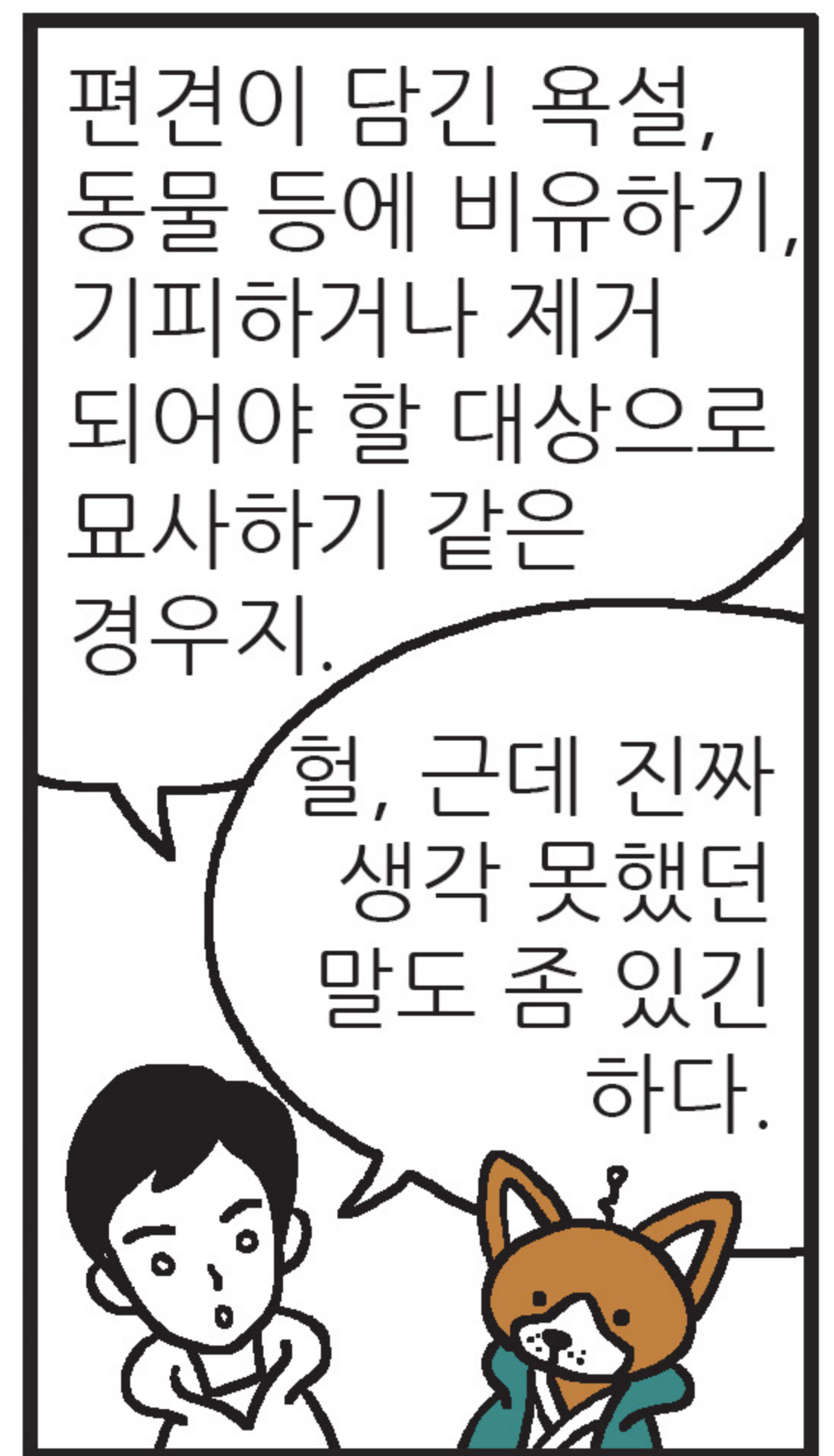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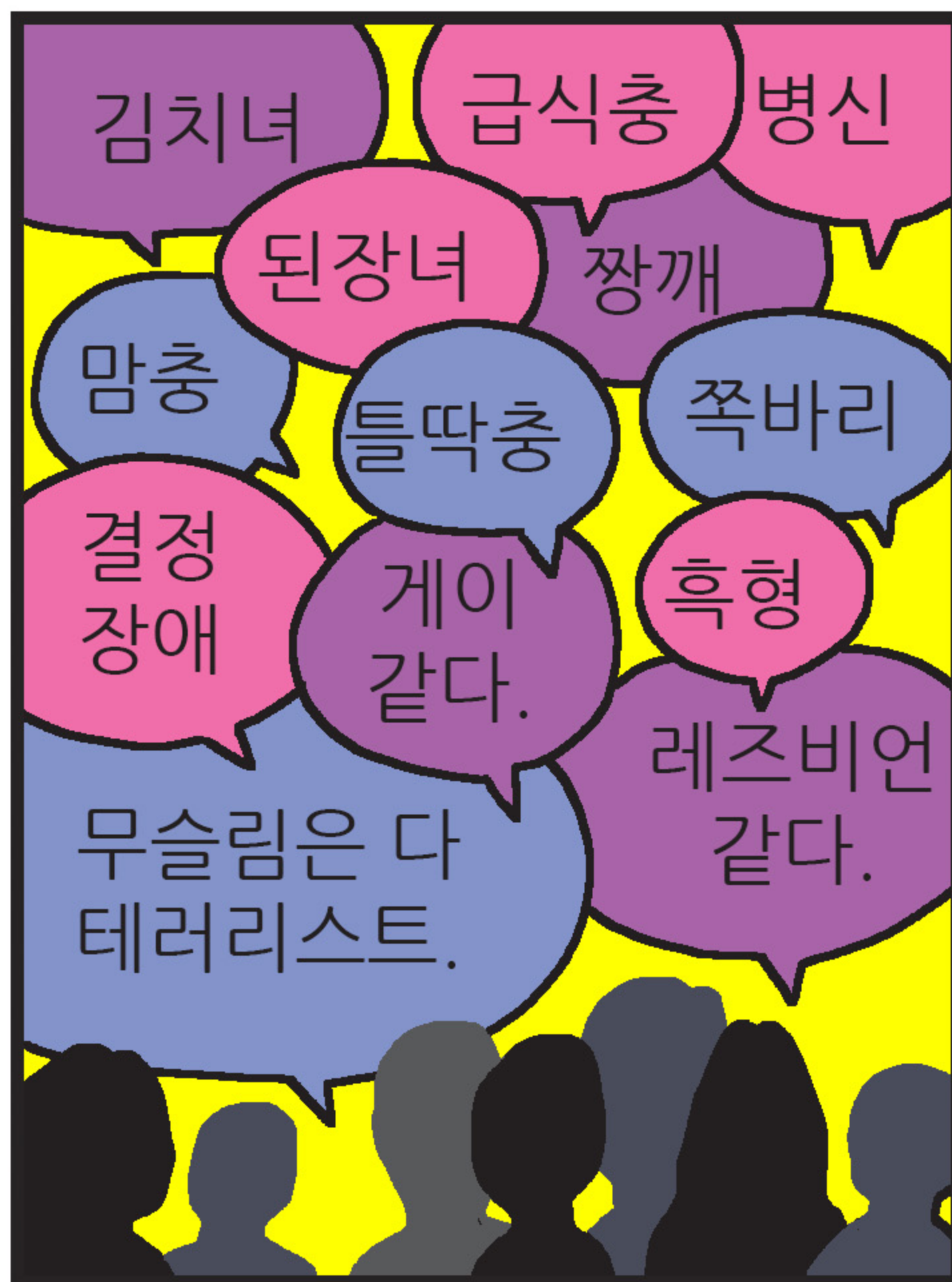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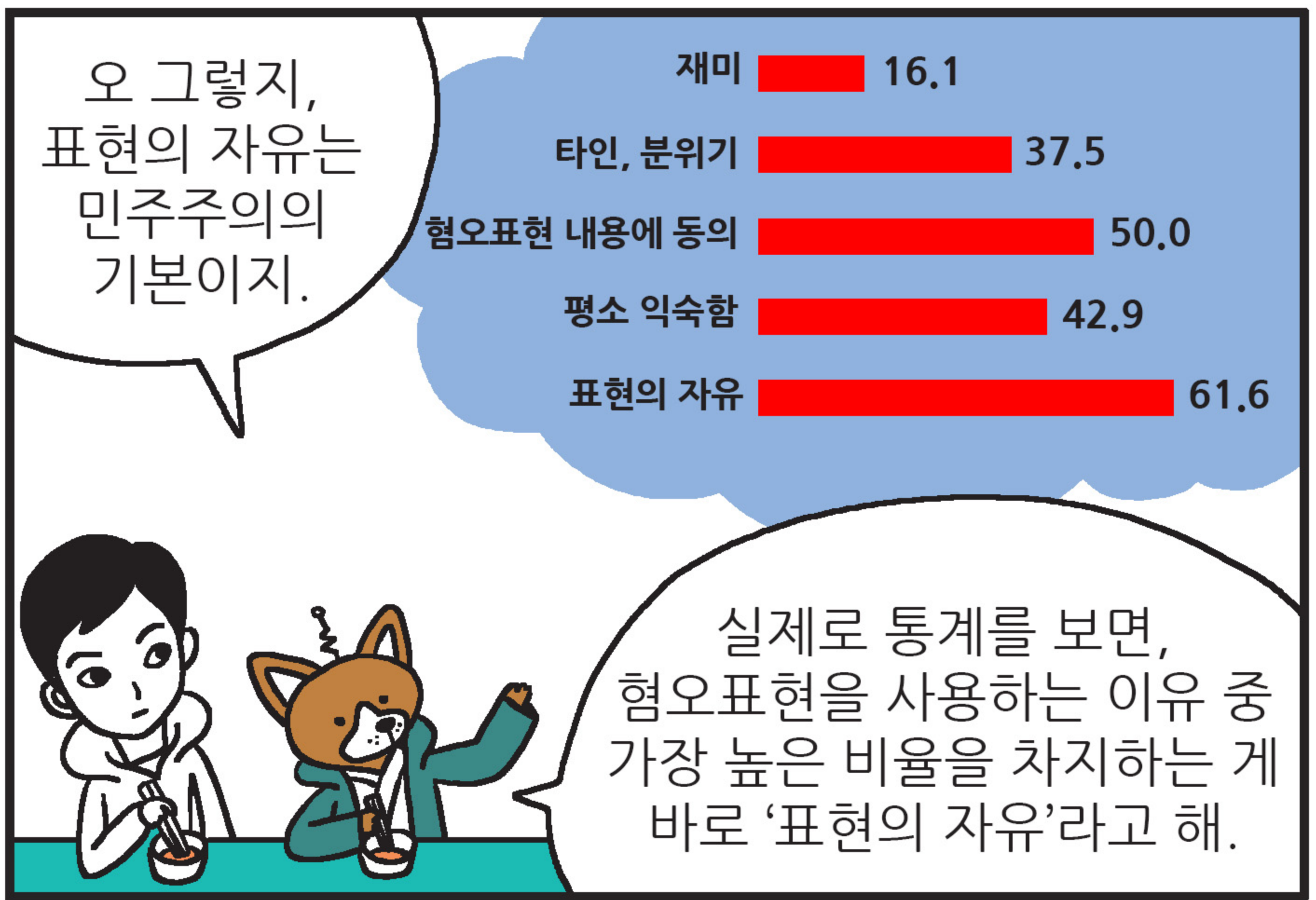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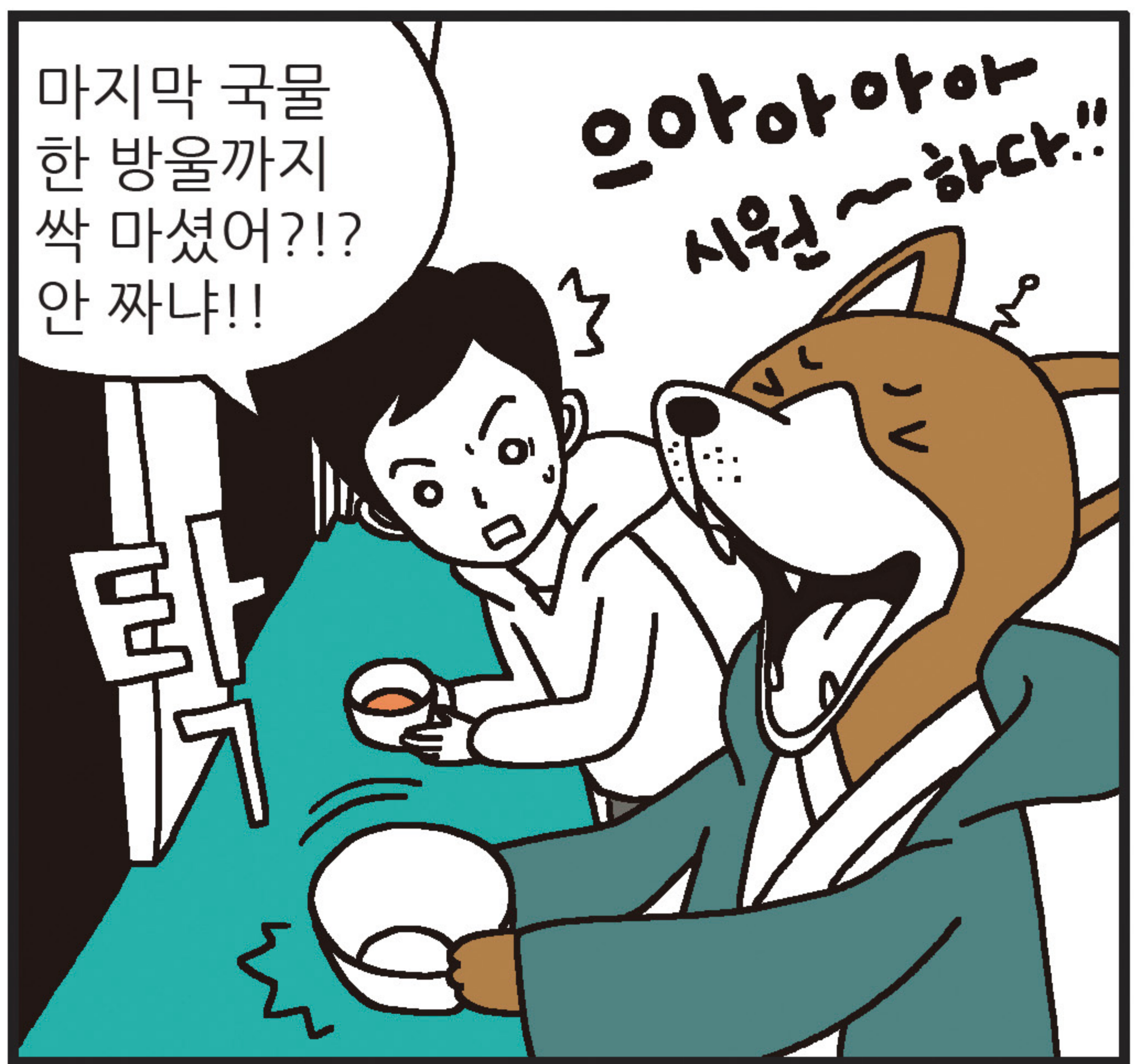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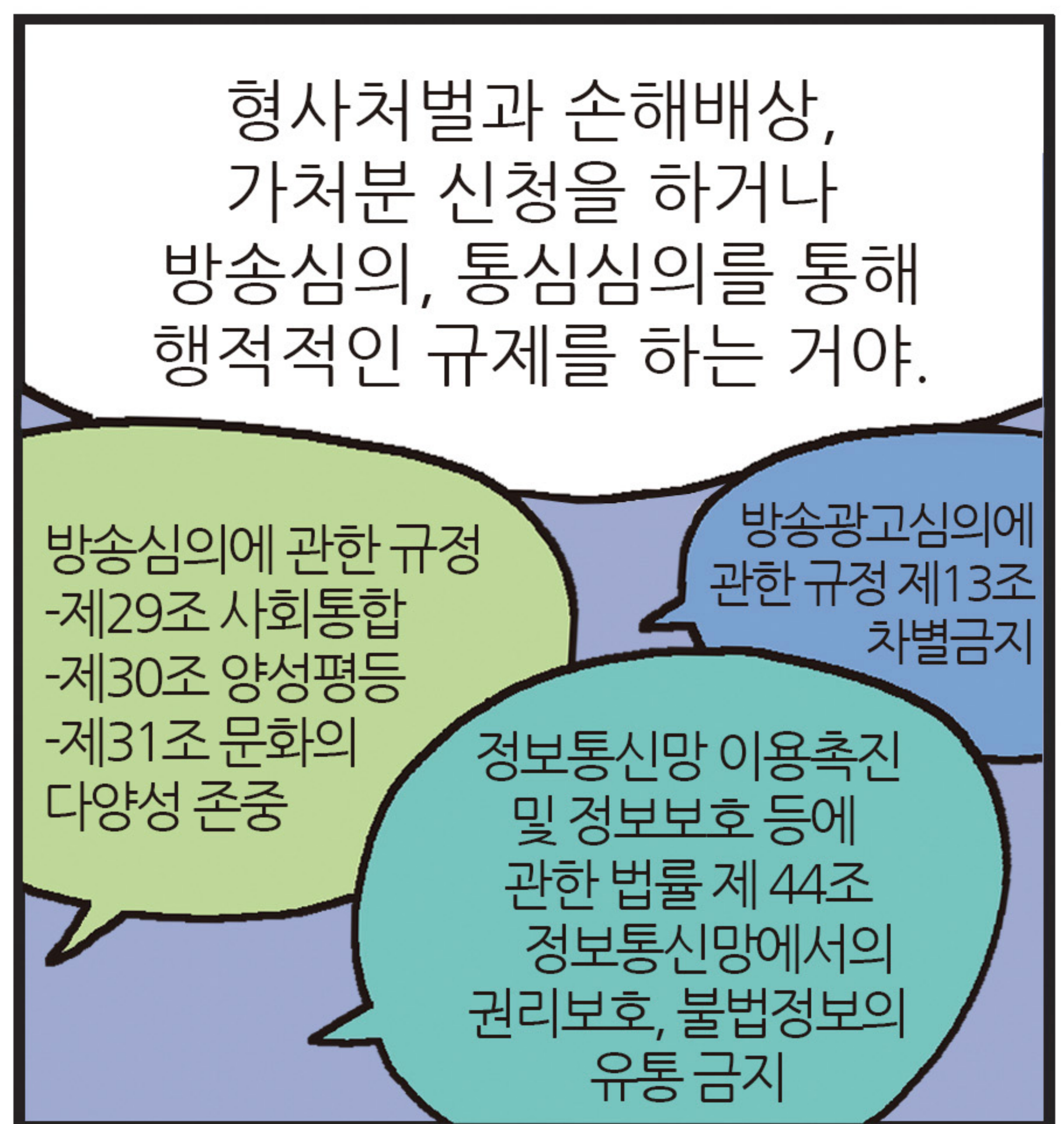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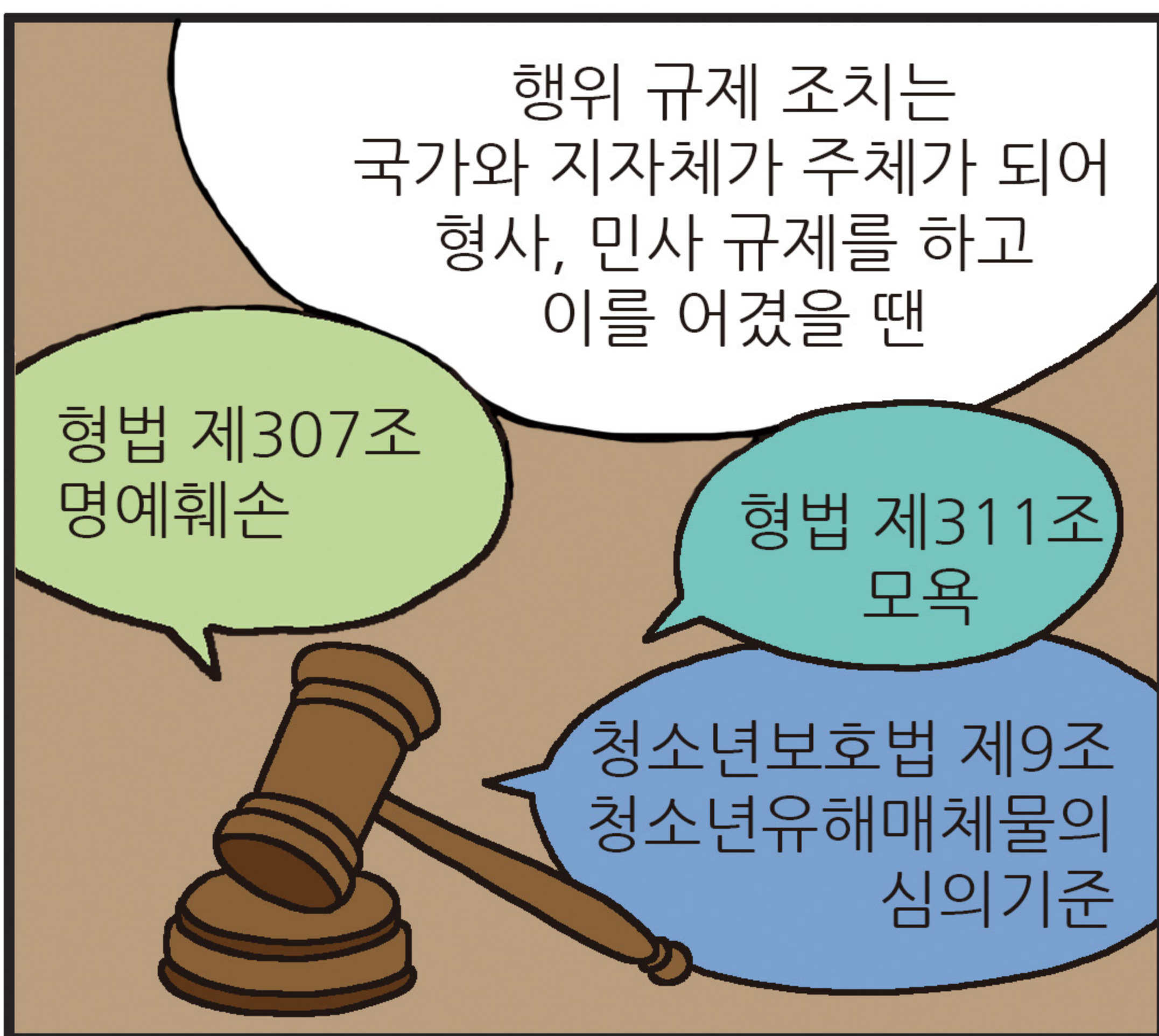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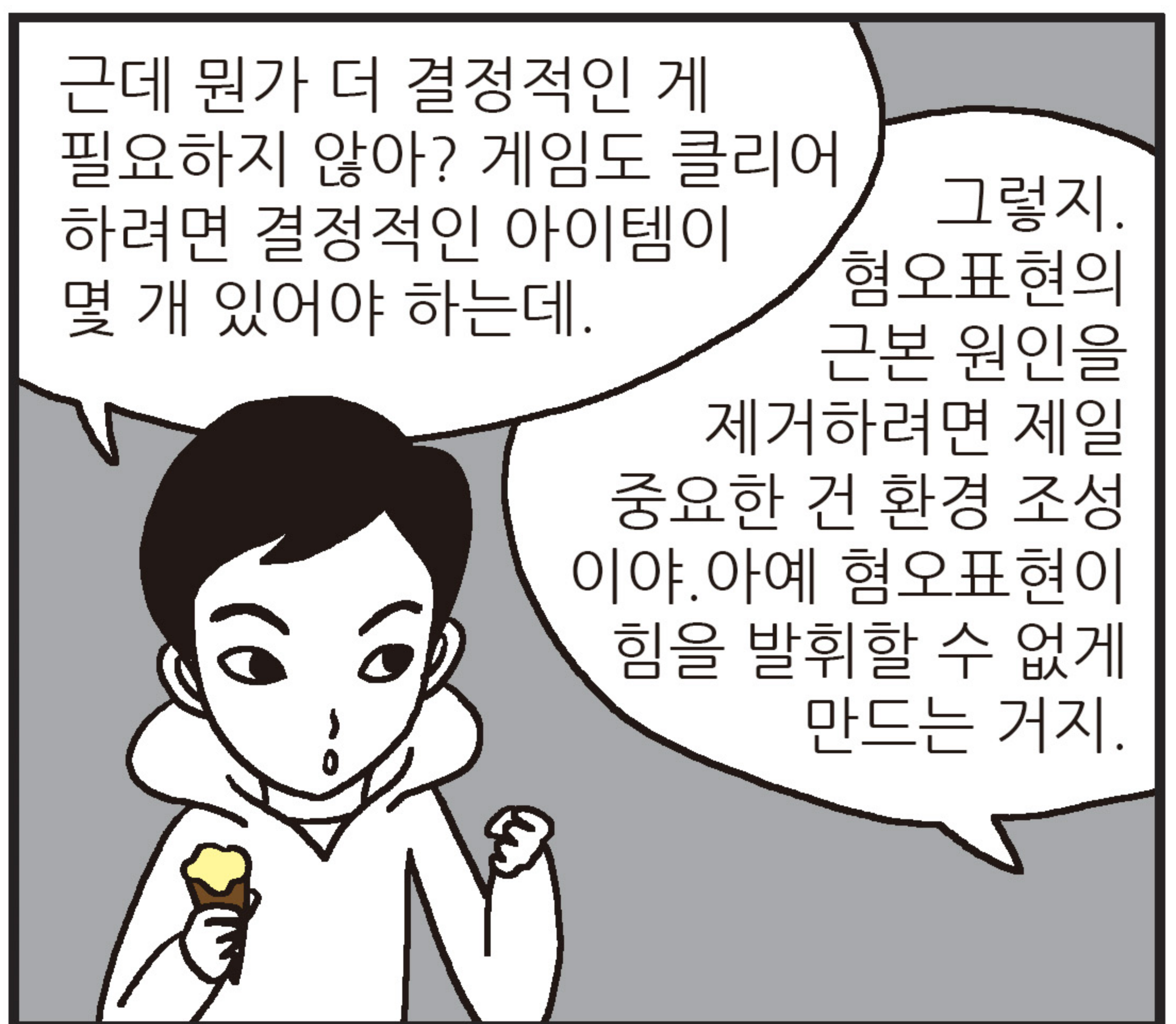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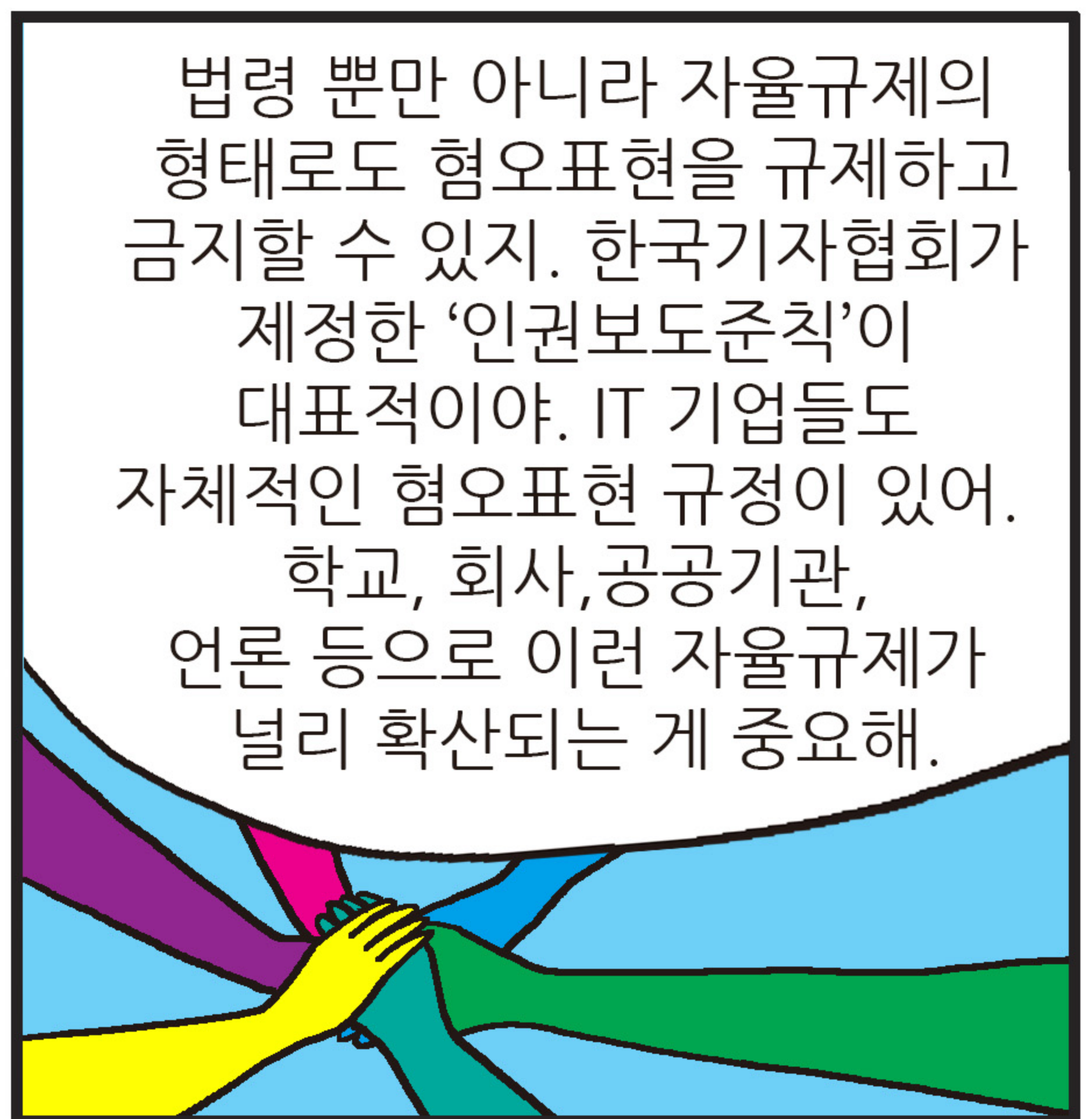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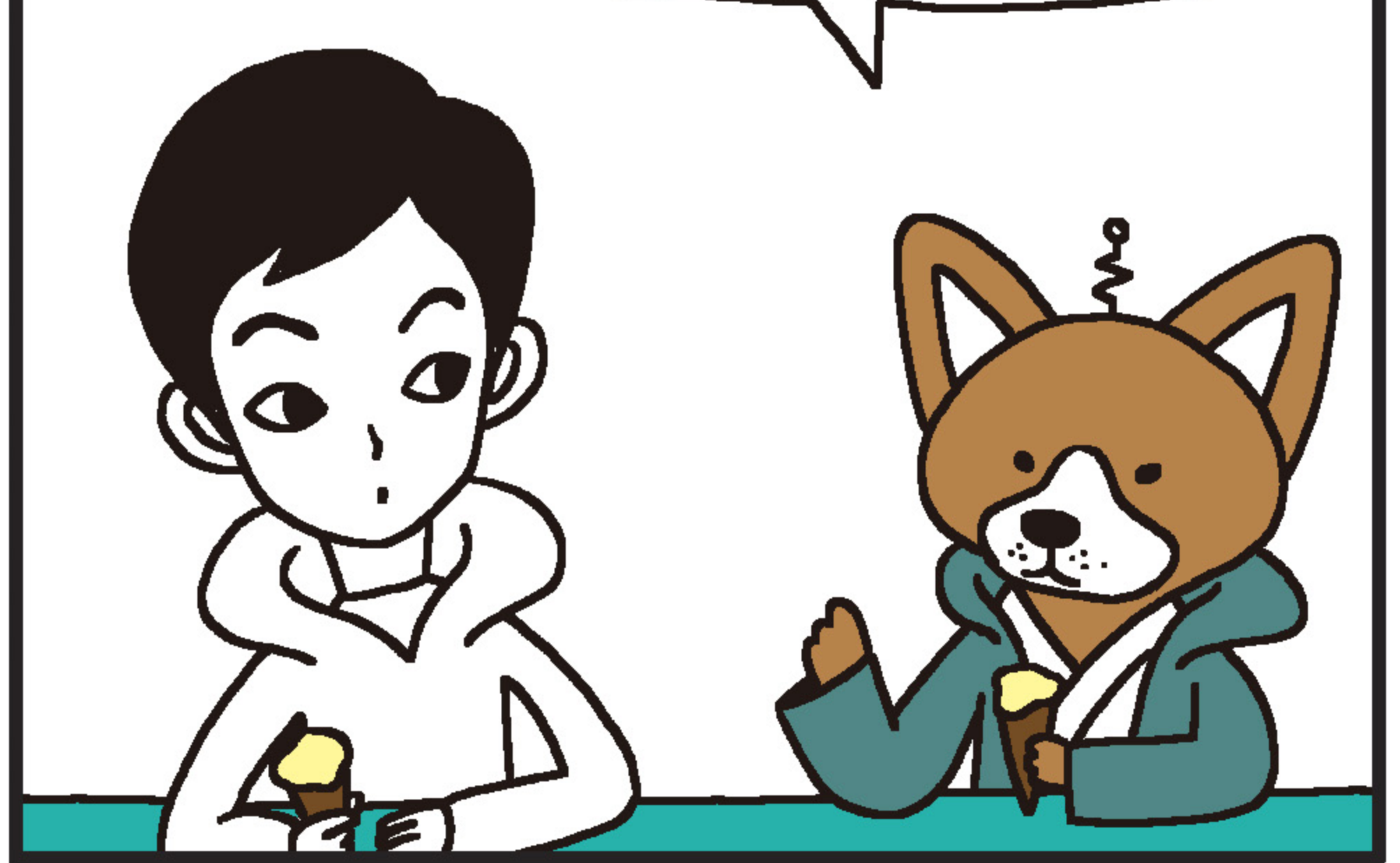


국가, 지자체, 기업의
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고,
차별금지정책이
추진돼야 해.

그리고 시민들은
혐오표현에 대한
'대항표현'을
일상적으로
실천해야 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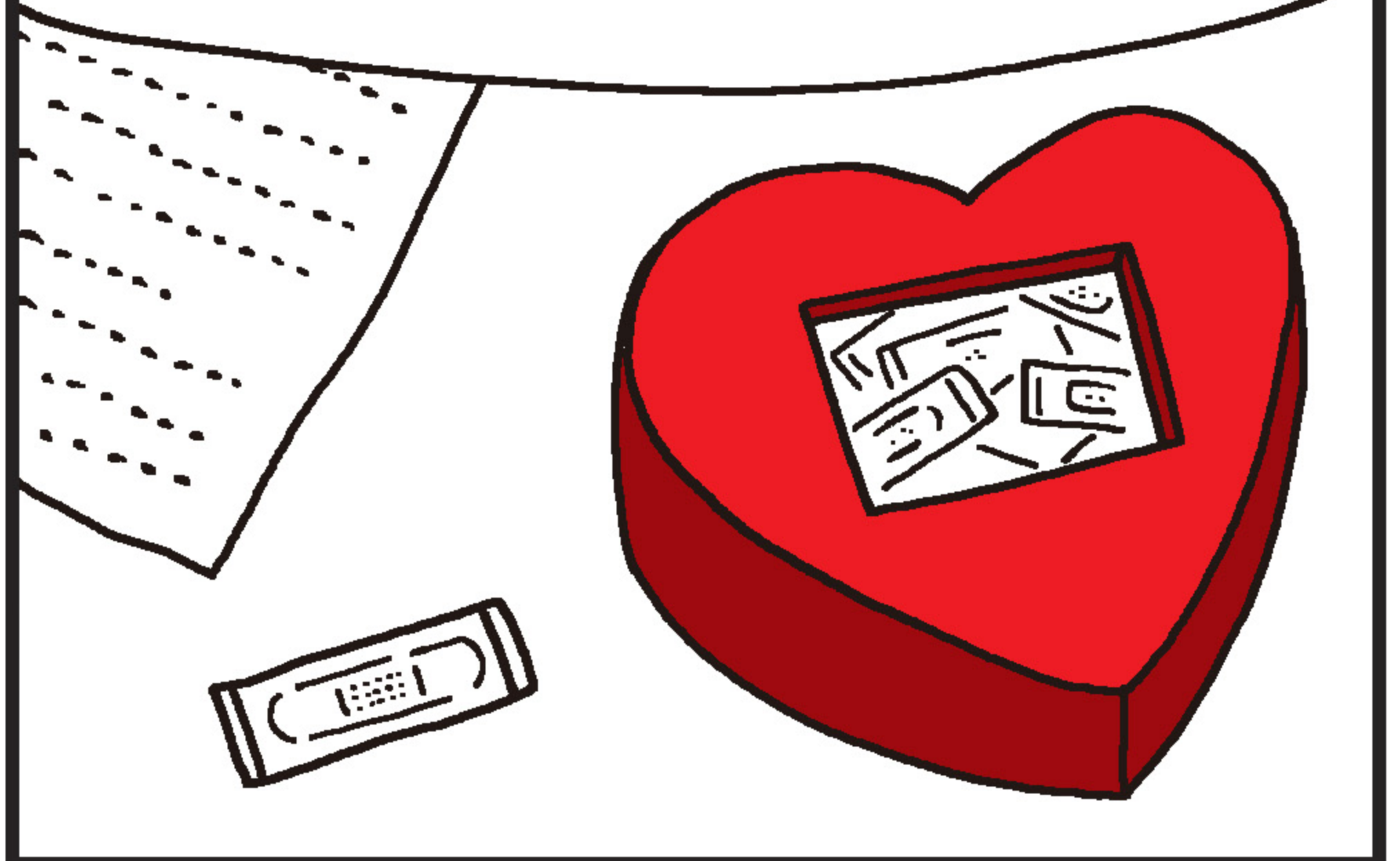
각 개인도 해야겠지만, 그 개인이 속한
조직적 차원의 대항이 더 중요한데
사례를 하나 소개할게.



서울대에서 성소수자를 환영하는
현수막을 붙였는데 어느 날 밤
현수막이 날카로운 칼로 찢겼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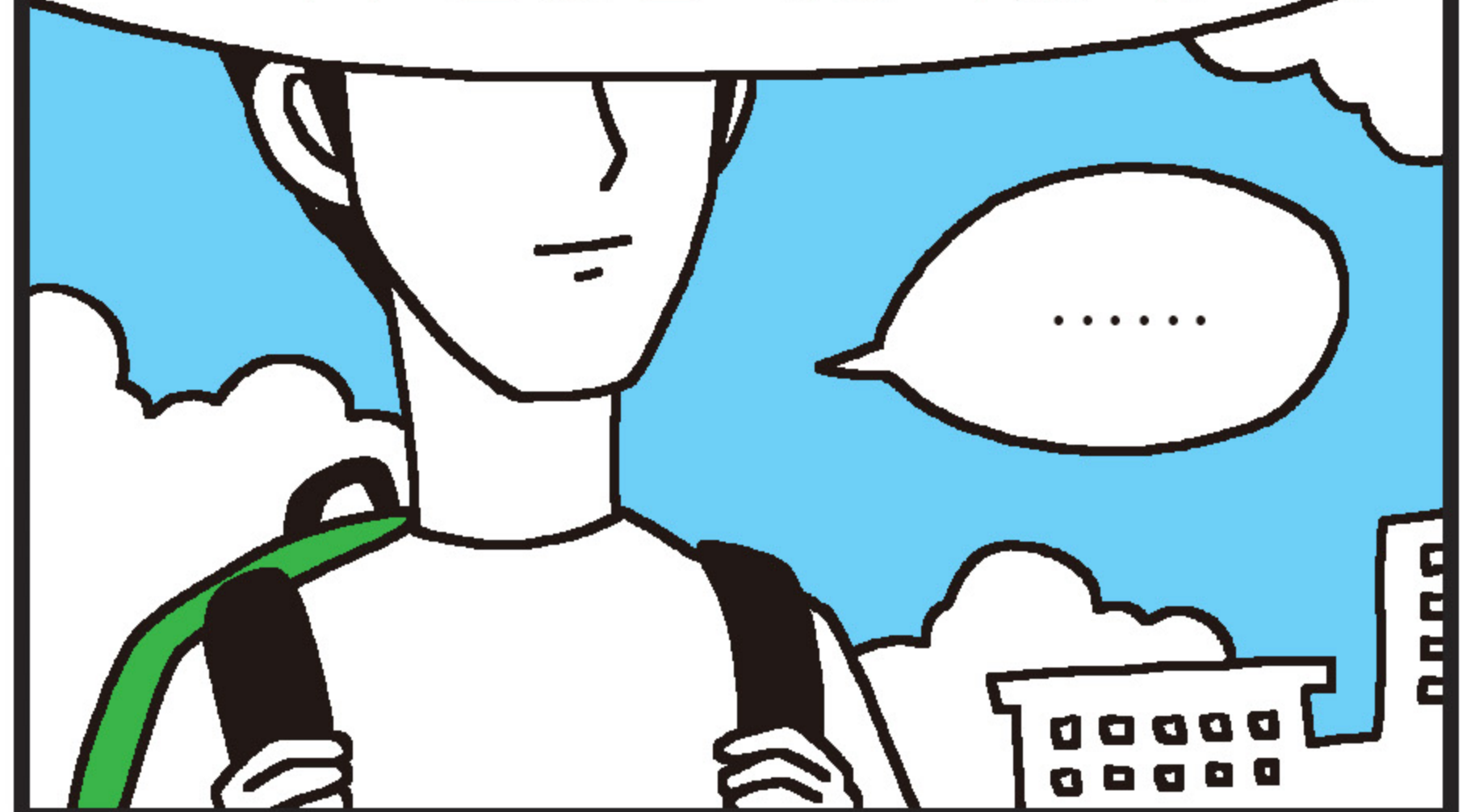
현수막을 붙인 학생들은 새로 현수막을
다는 대신, 그 찢겨진 현수막을 학생
회관 앞으로 가져와서 모두가 복원에
참여해달라고 요청했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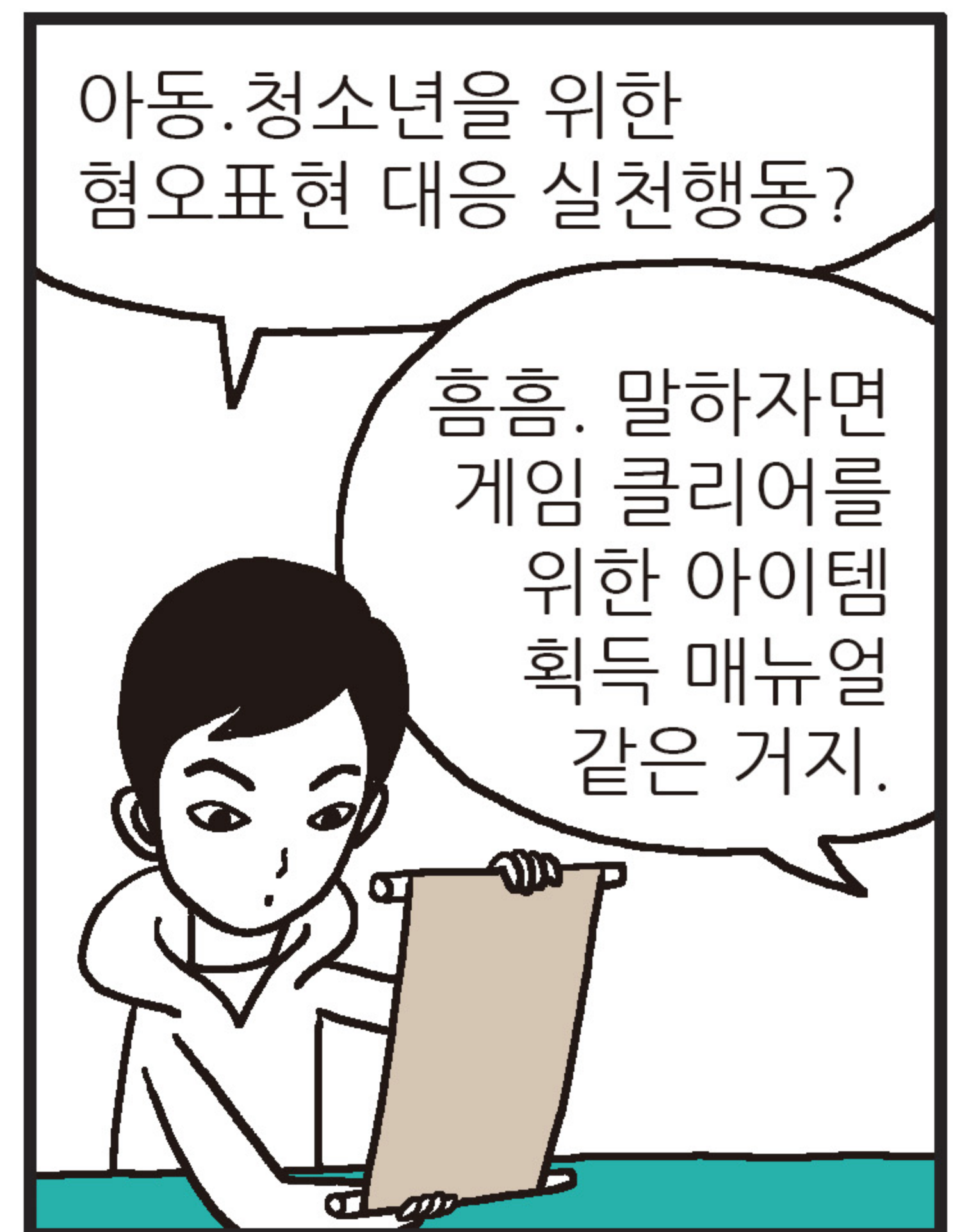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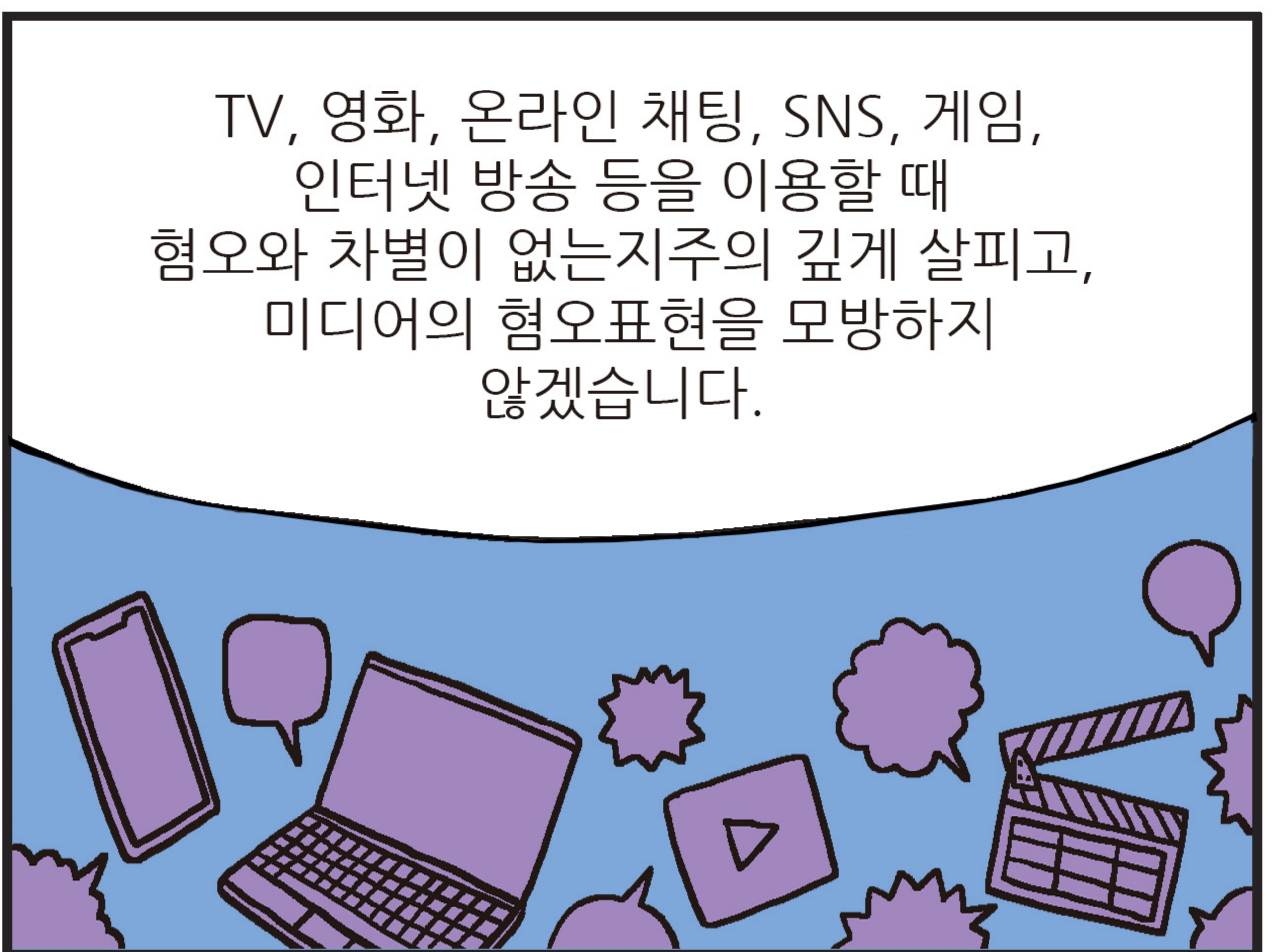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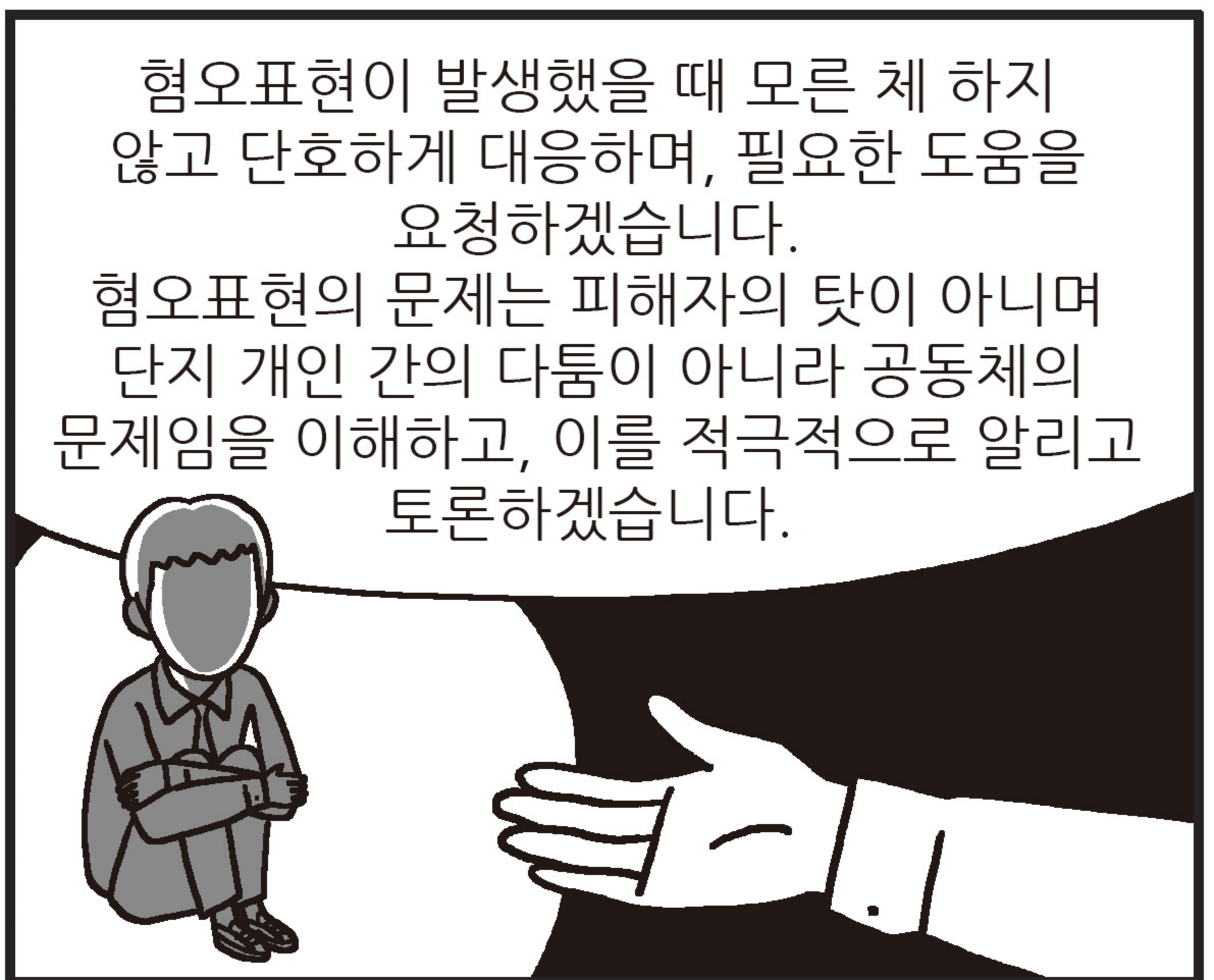
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현수막을
반창고로 이어 붙여서 이렇게 복원 되었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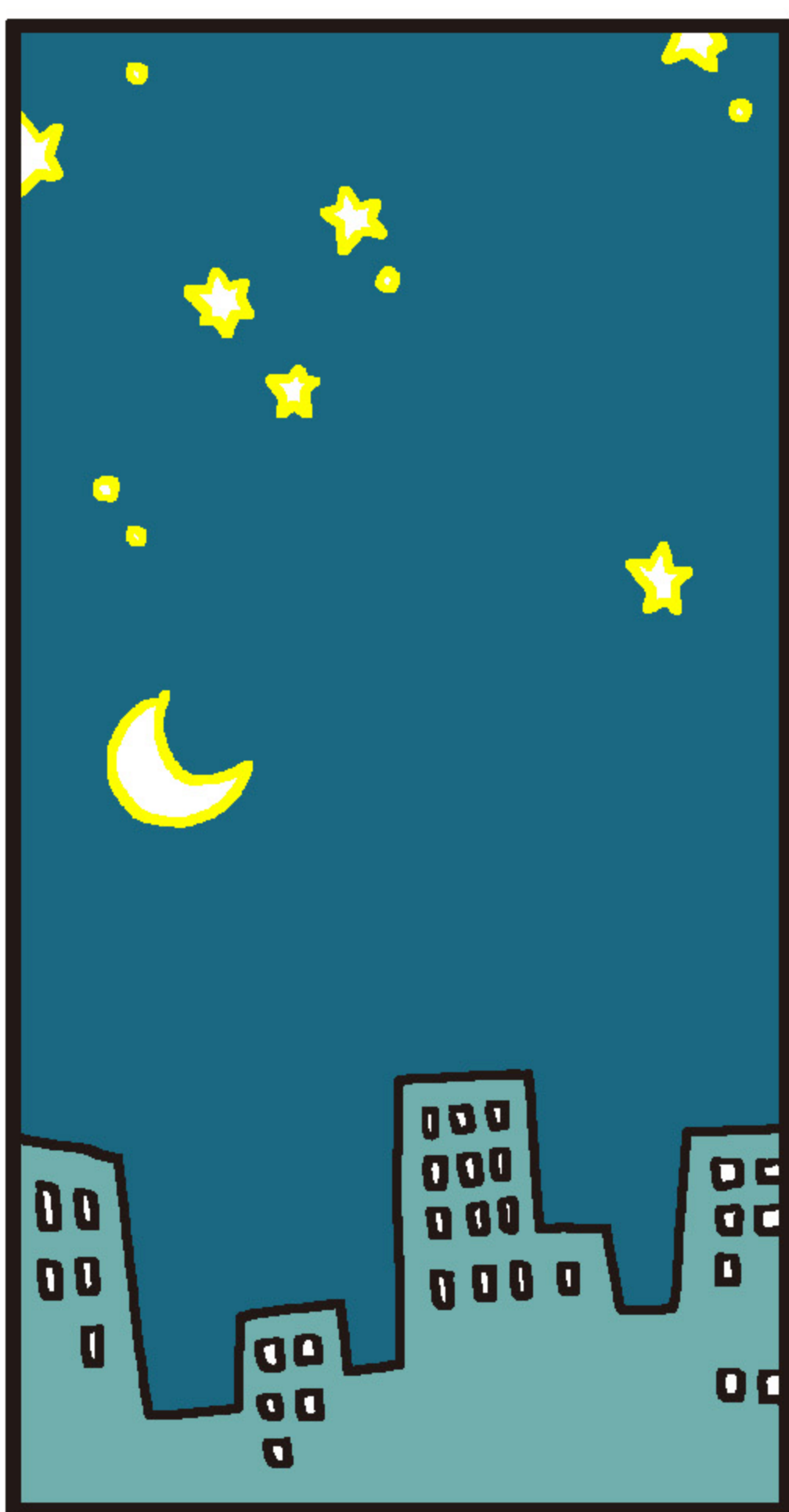


찢겨진 현수막을 본 성소수자
학생들은 "이 대학에서 내가 환영
받지 못하고 있다"고 생각했겠지만,
복원된 현수막을 보고 위안을
받았을 거야. 혐오표현에 대한
아주 훌륭한 대응이었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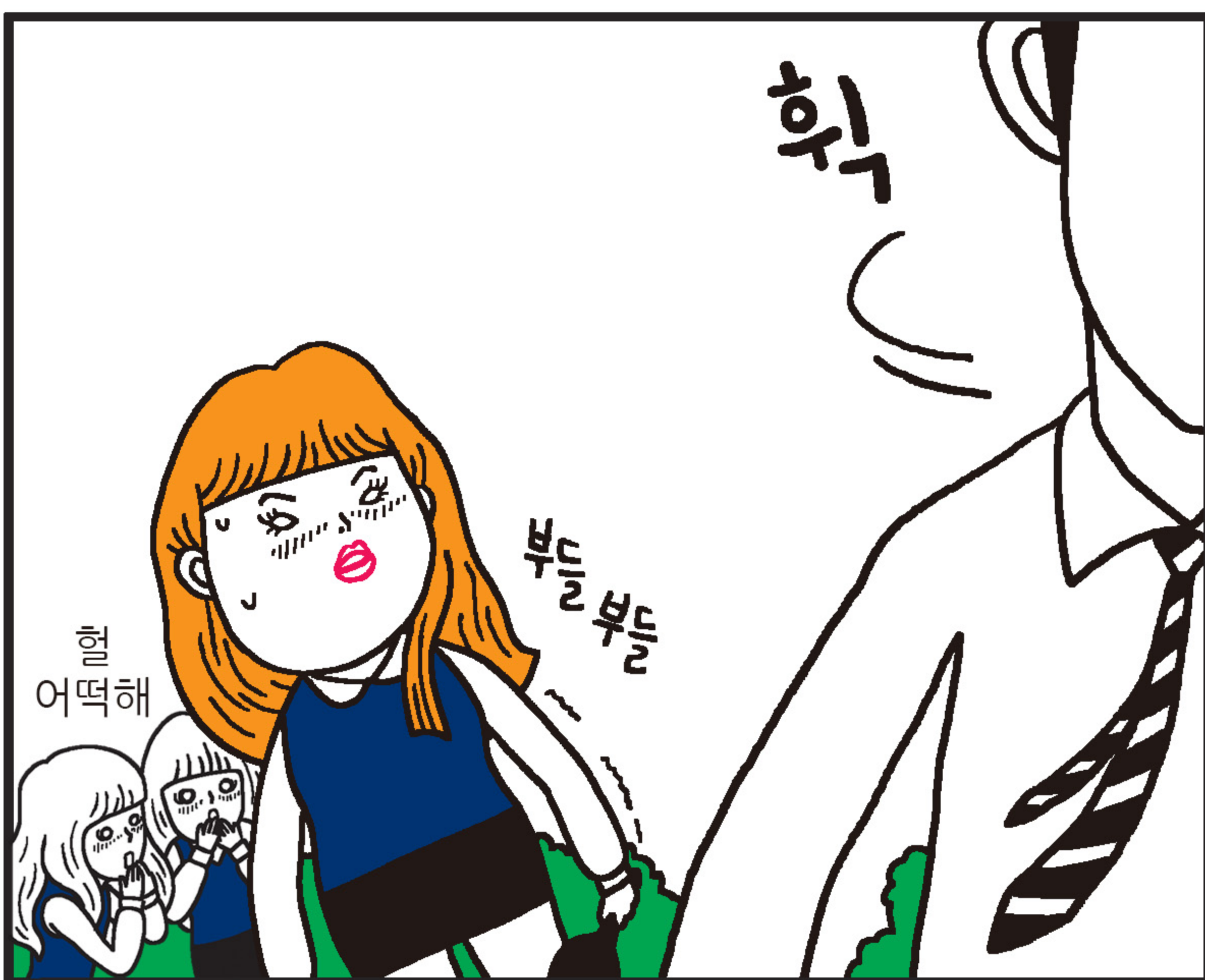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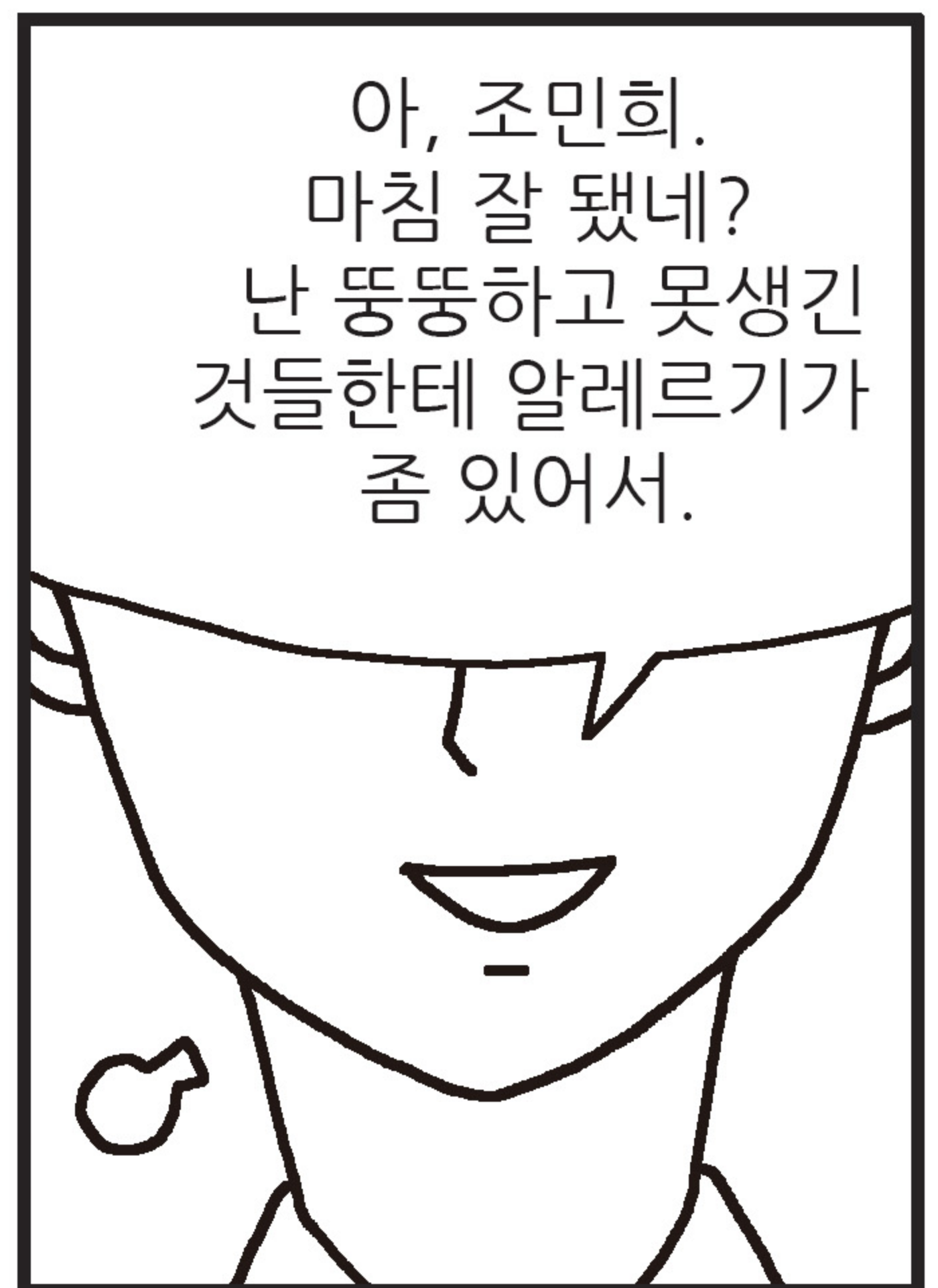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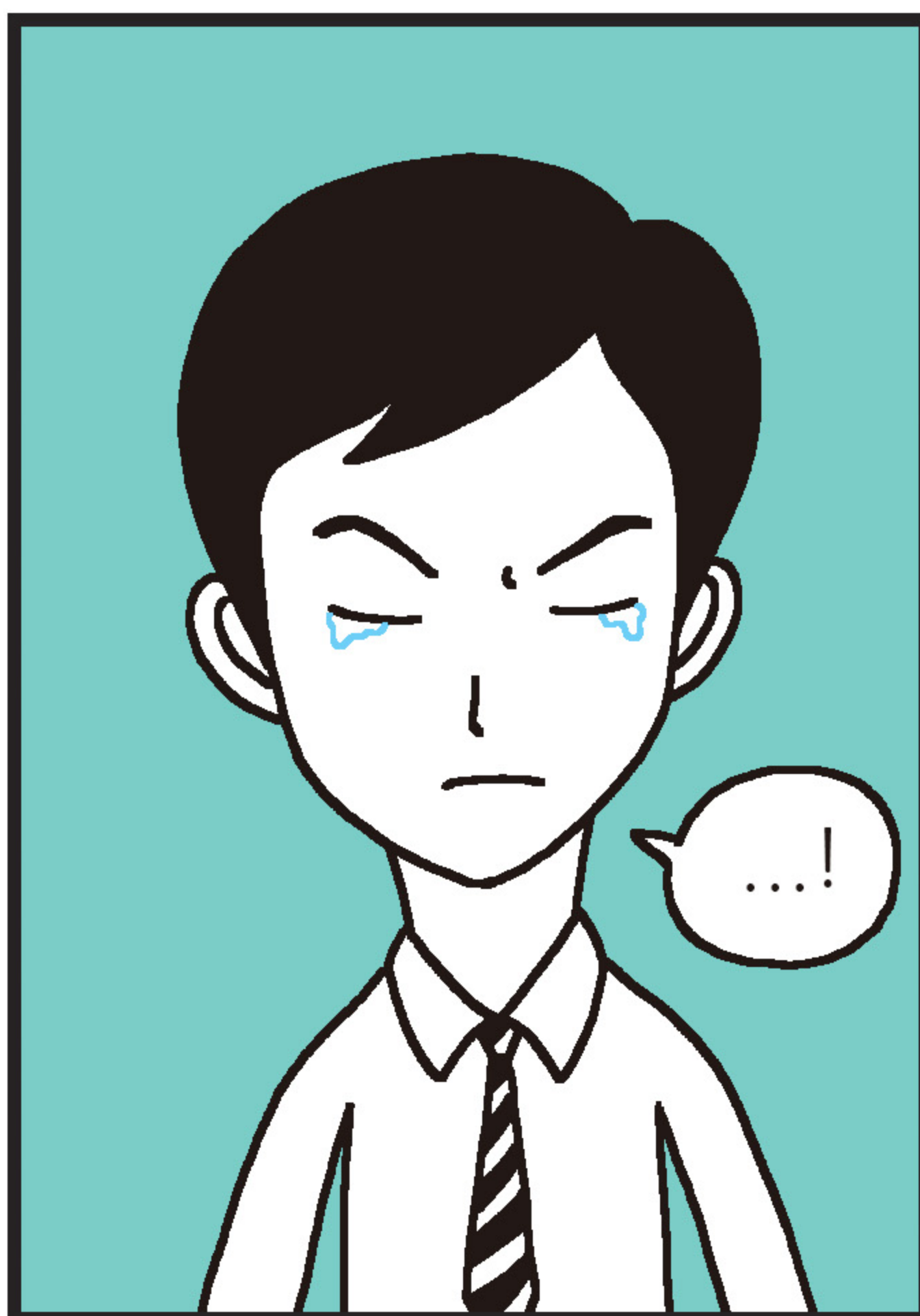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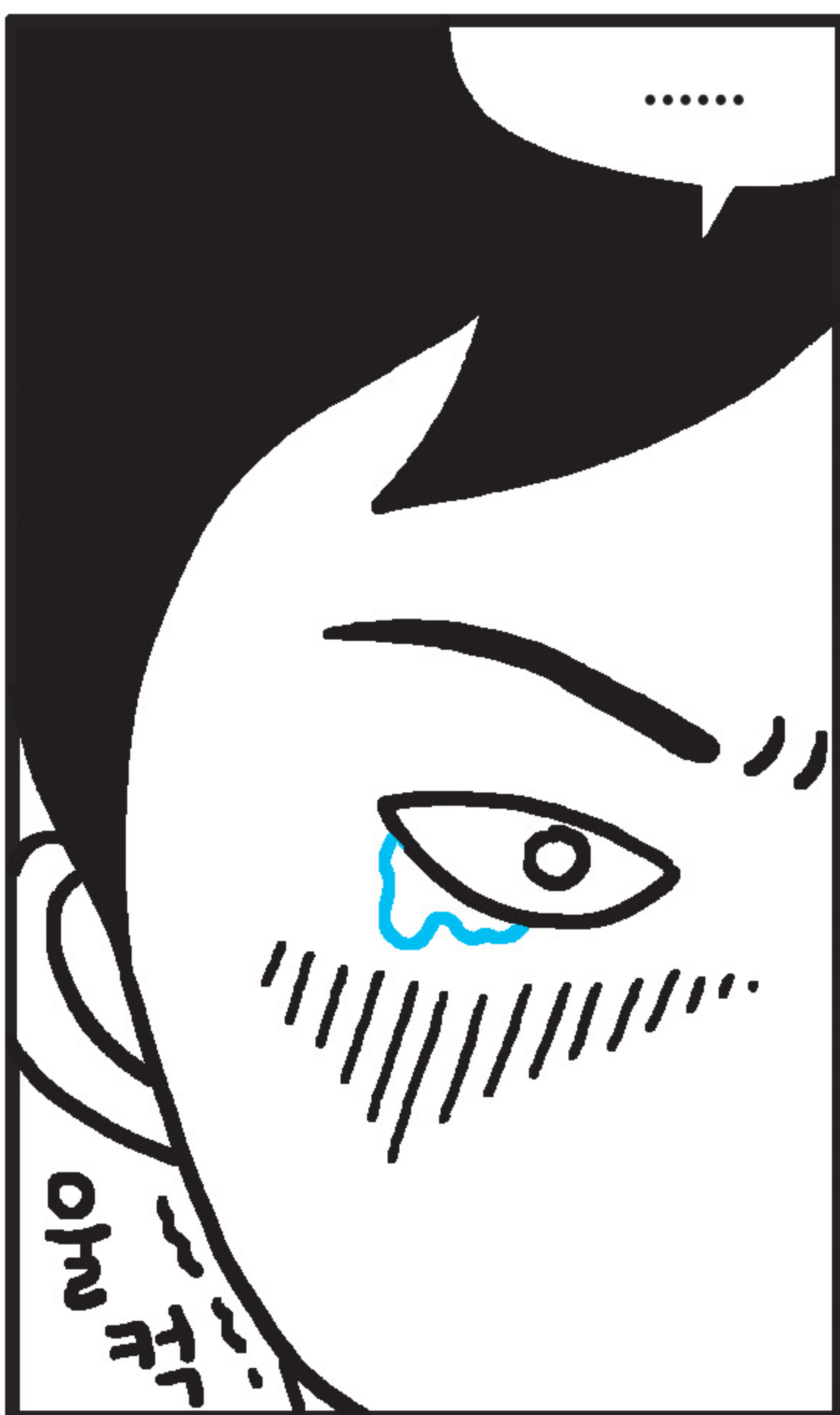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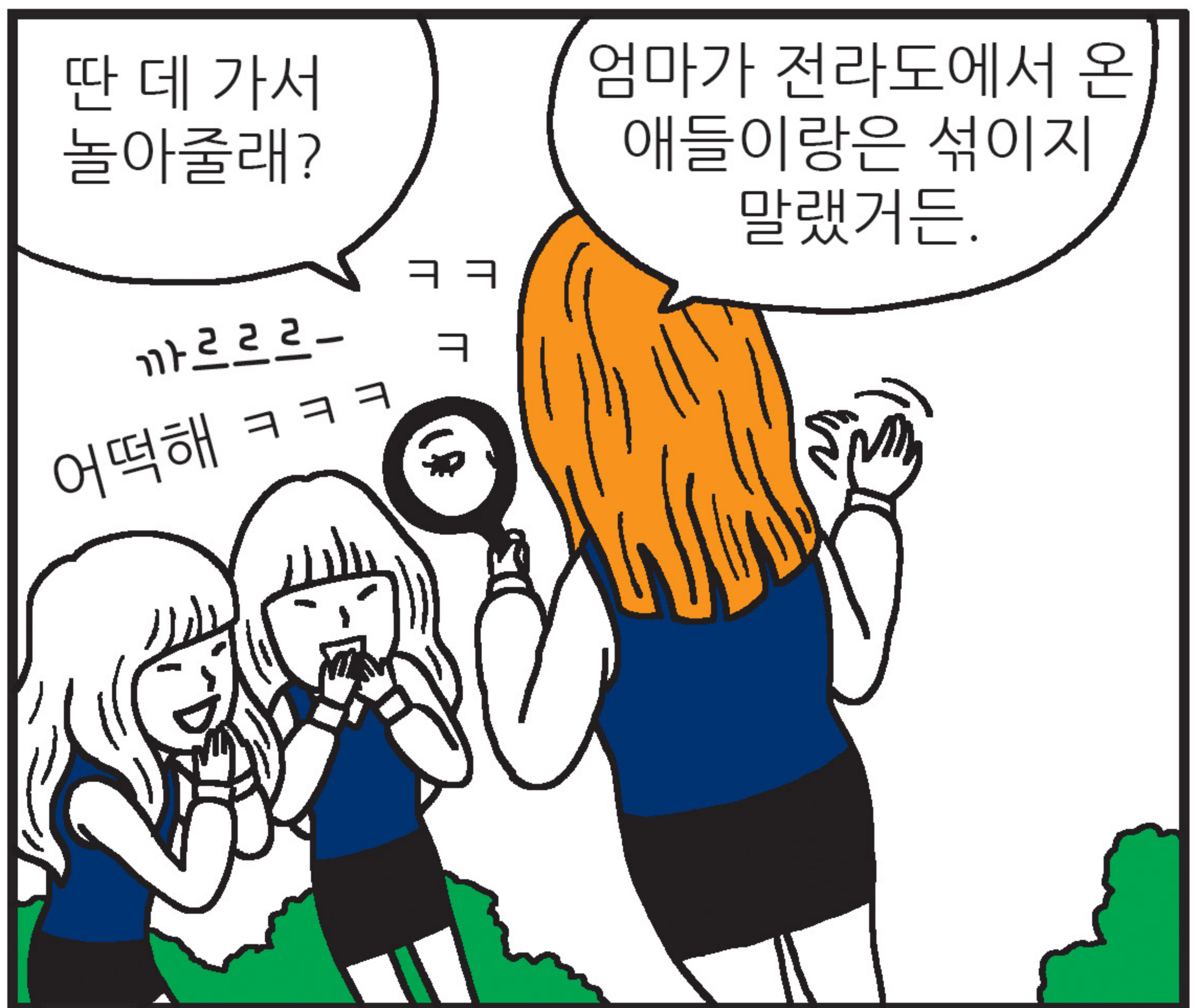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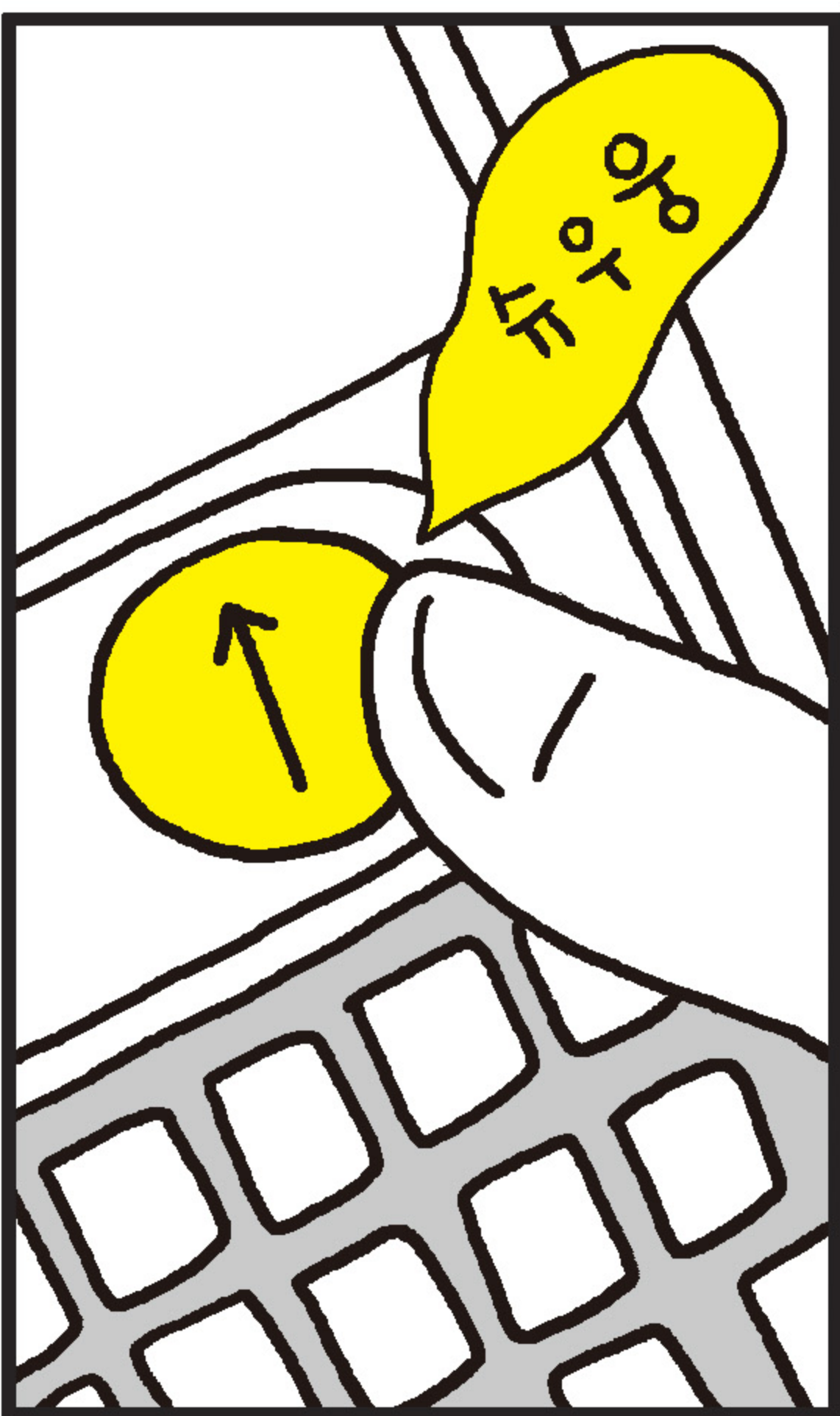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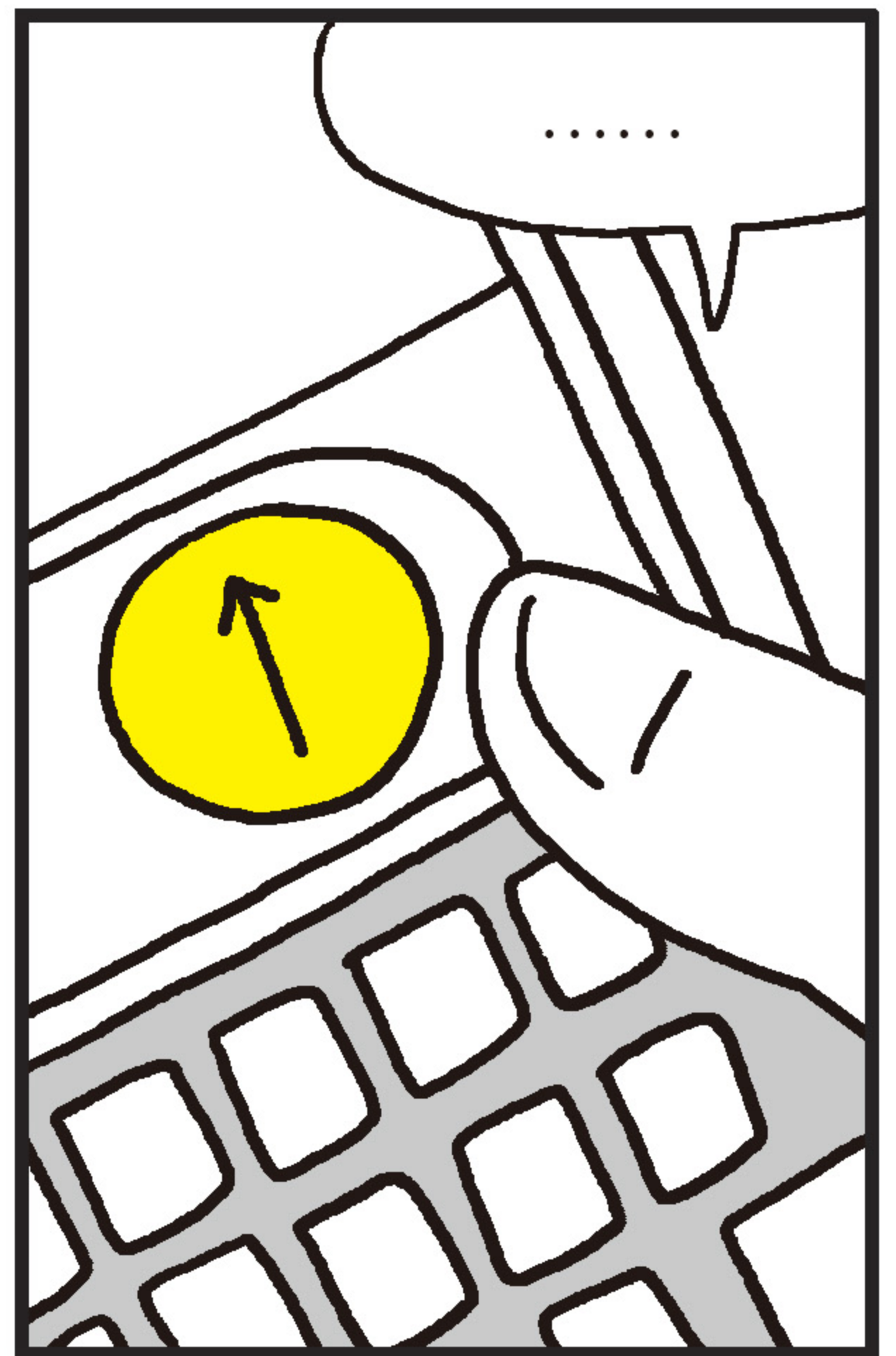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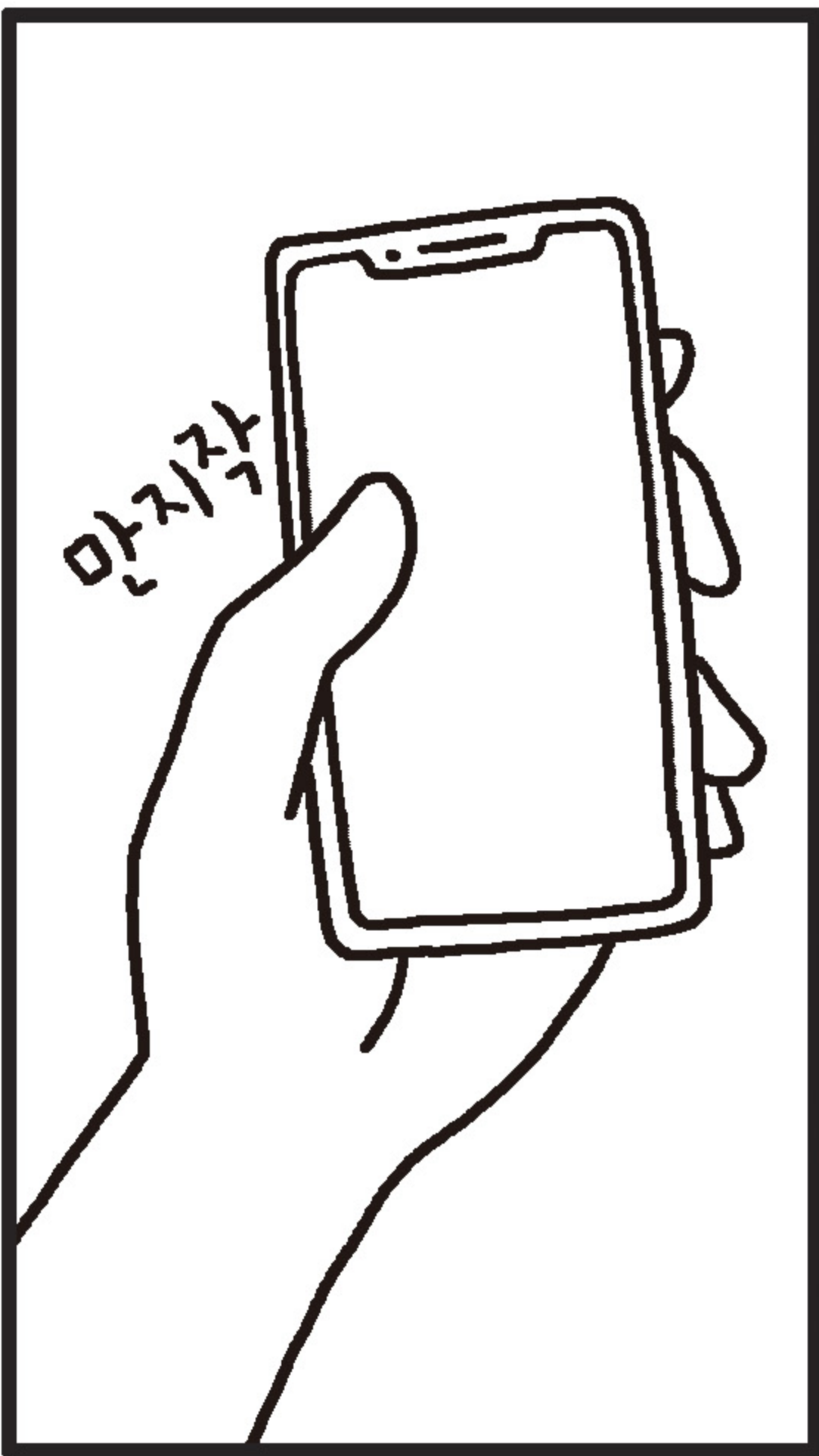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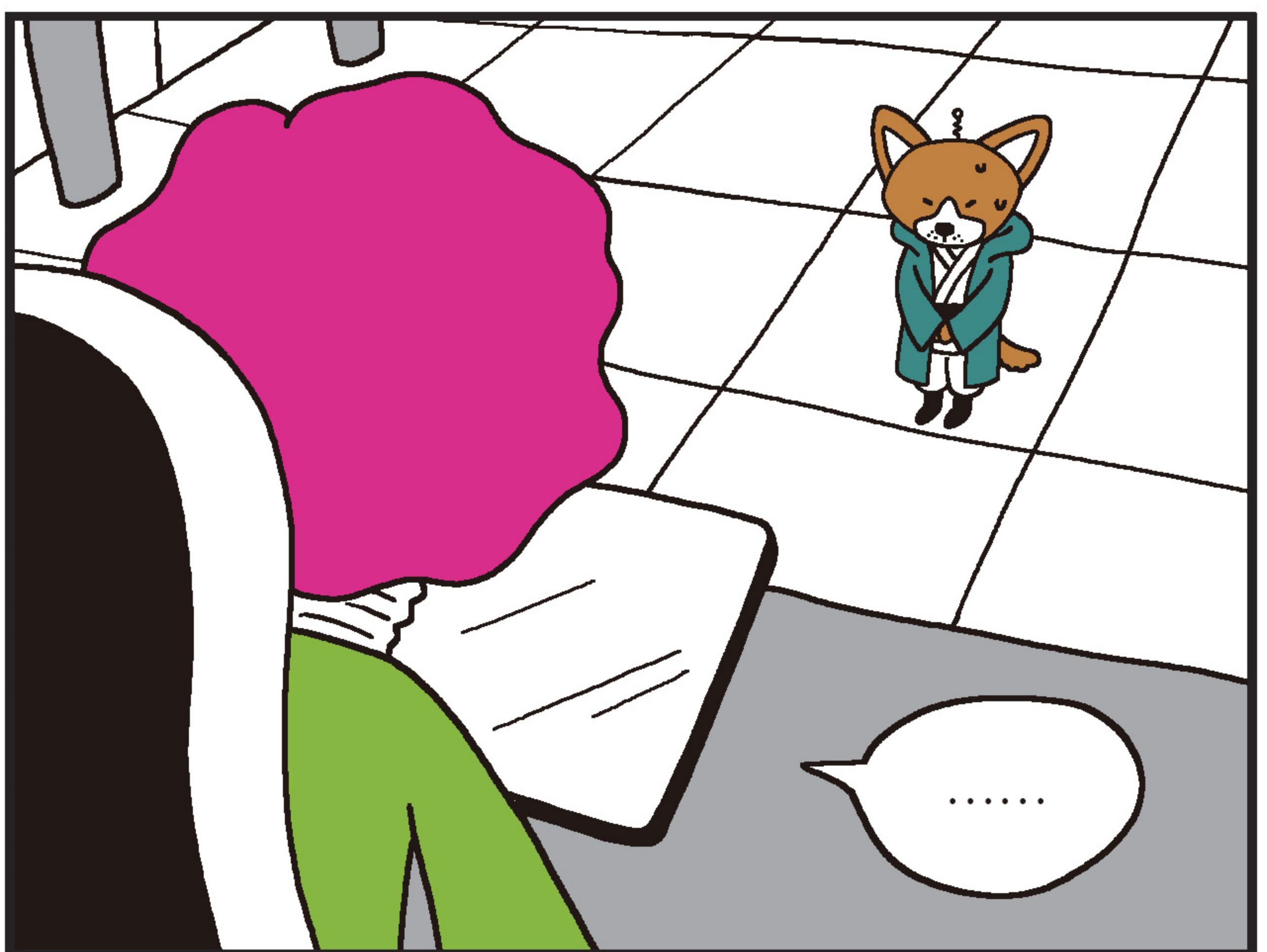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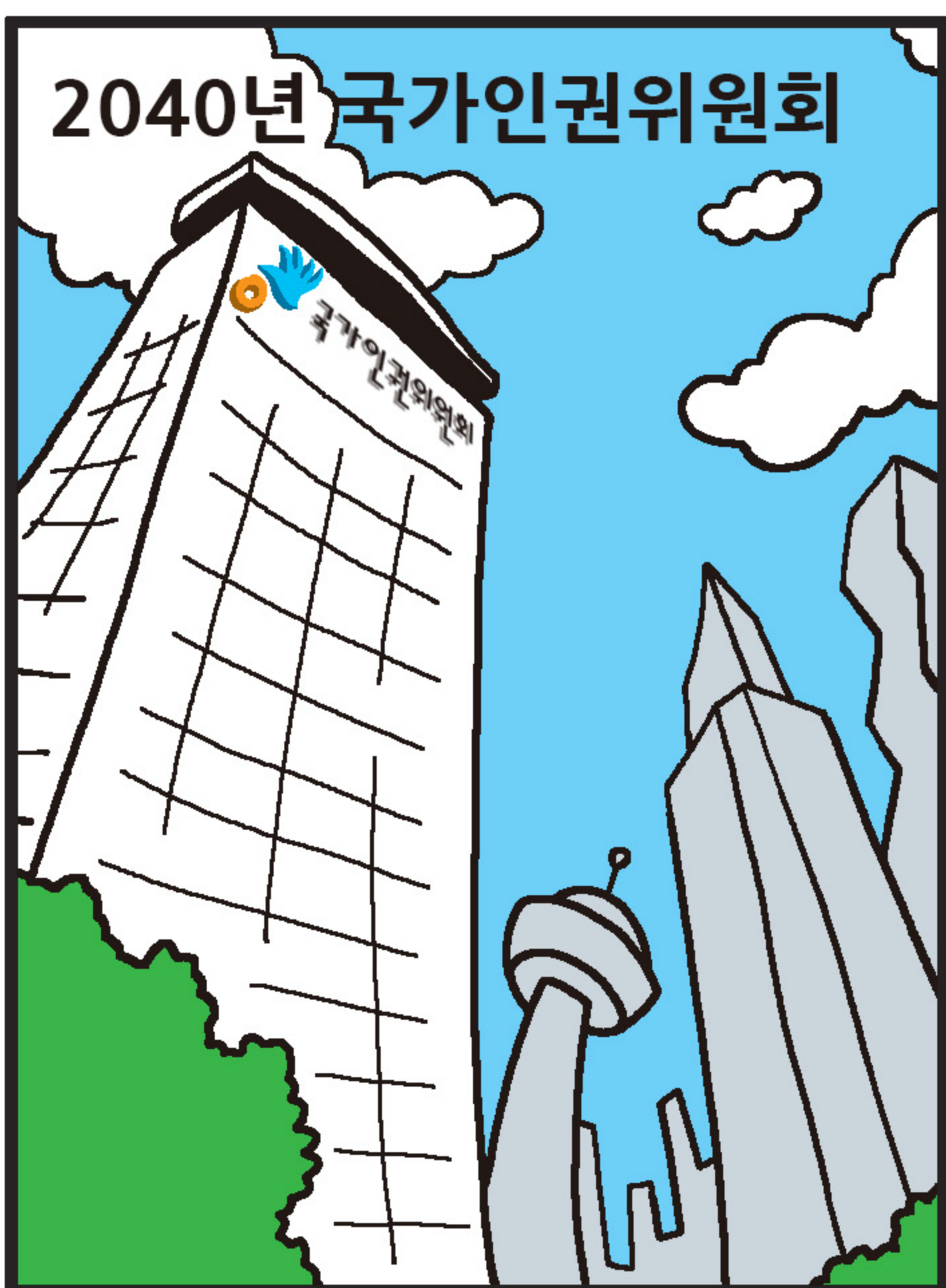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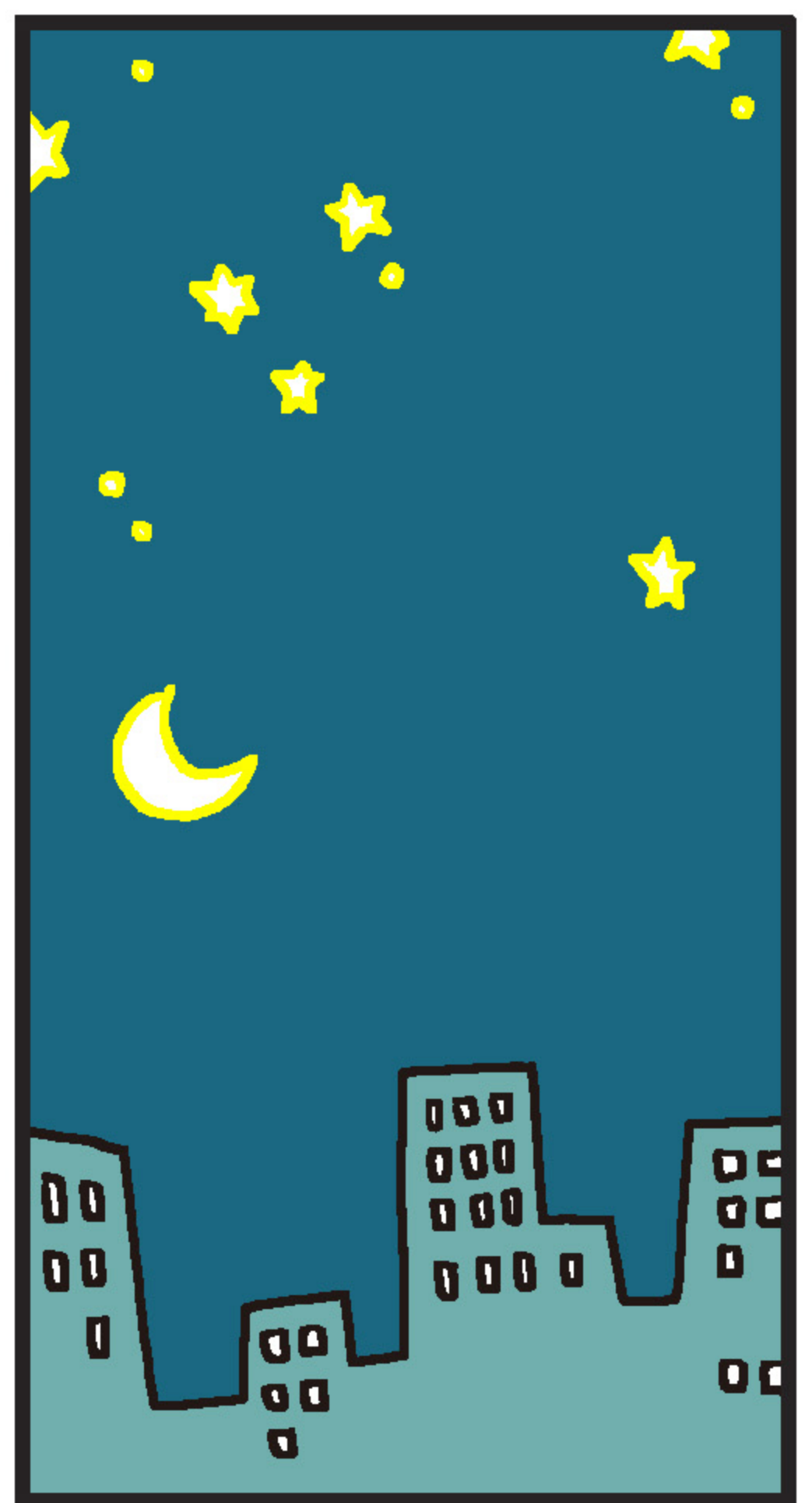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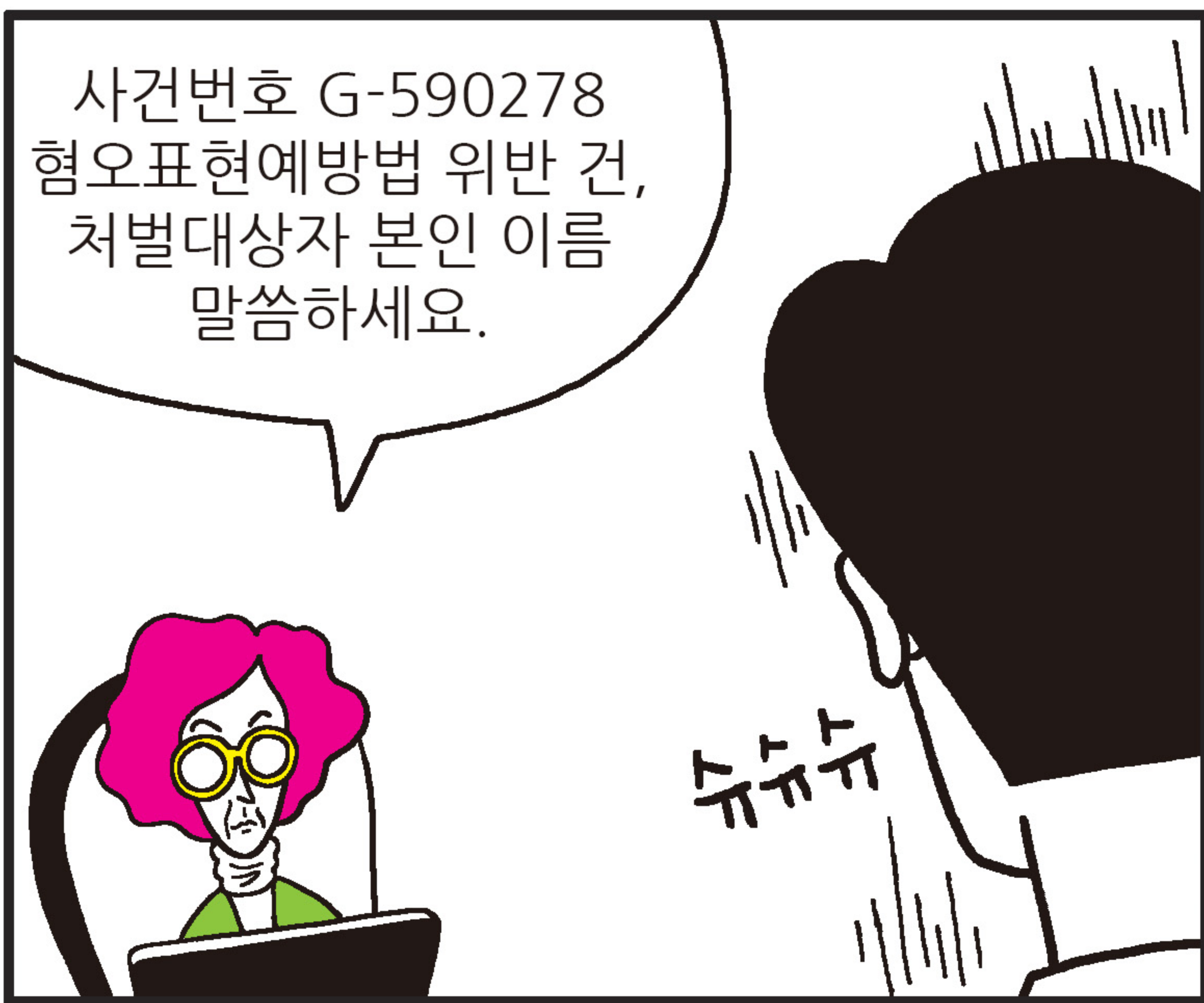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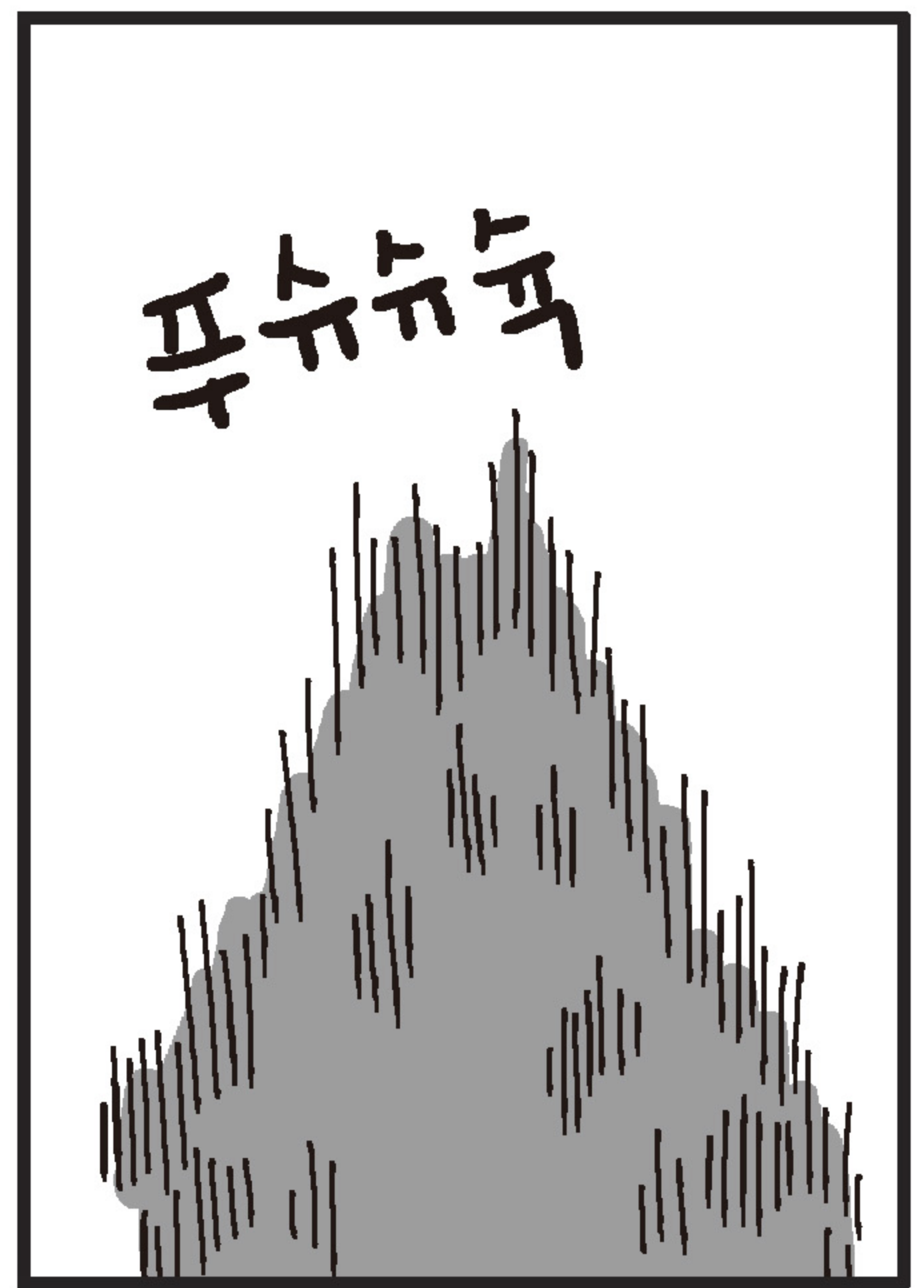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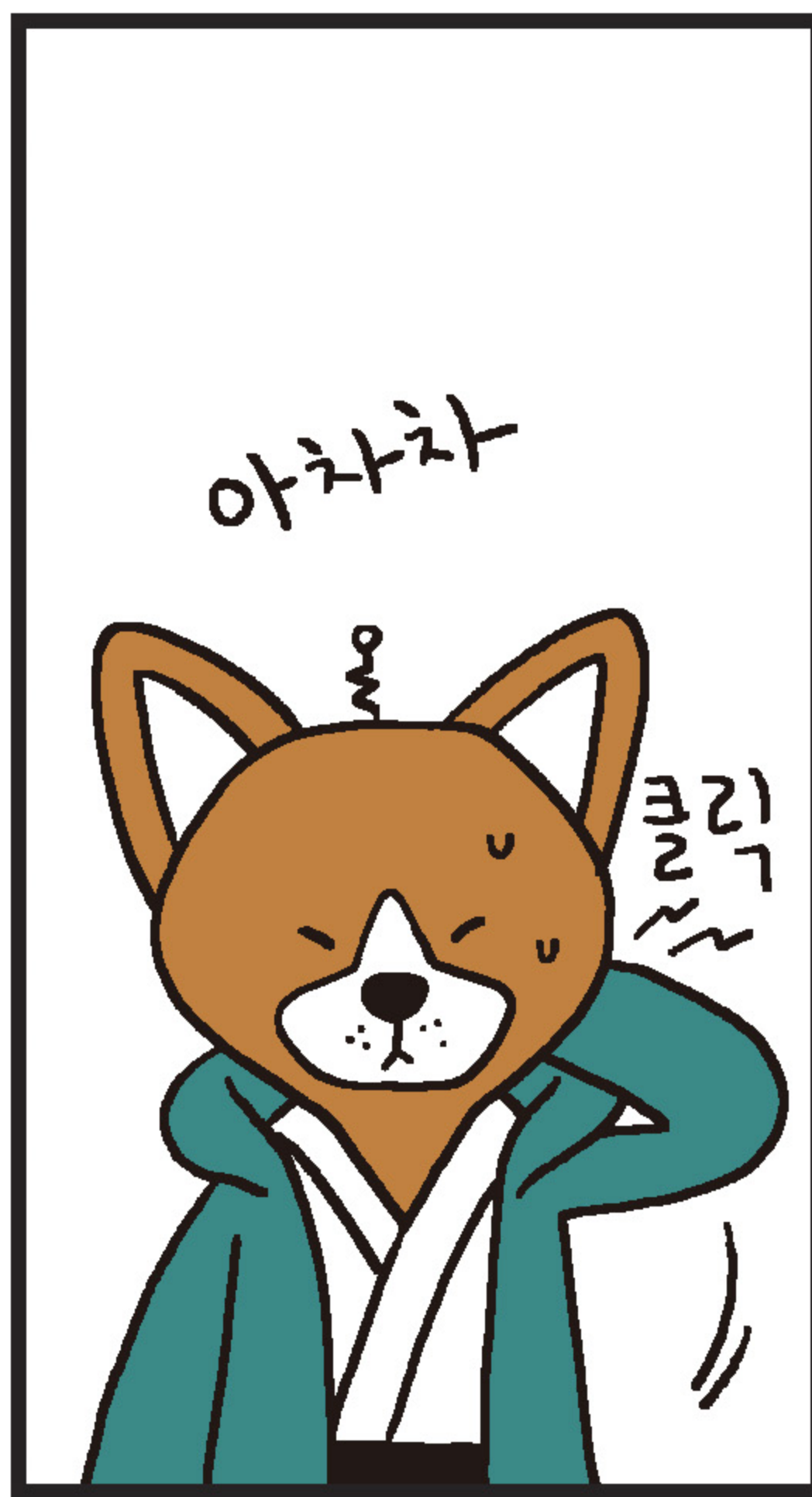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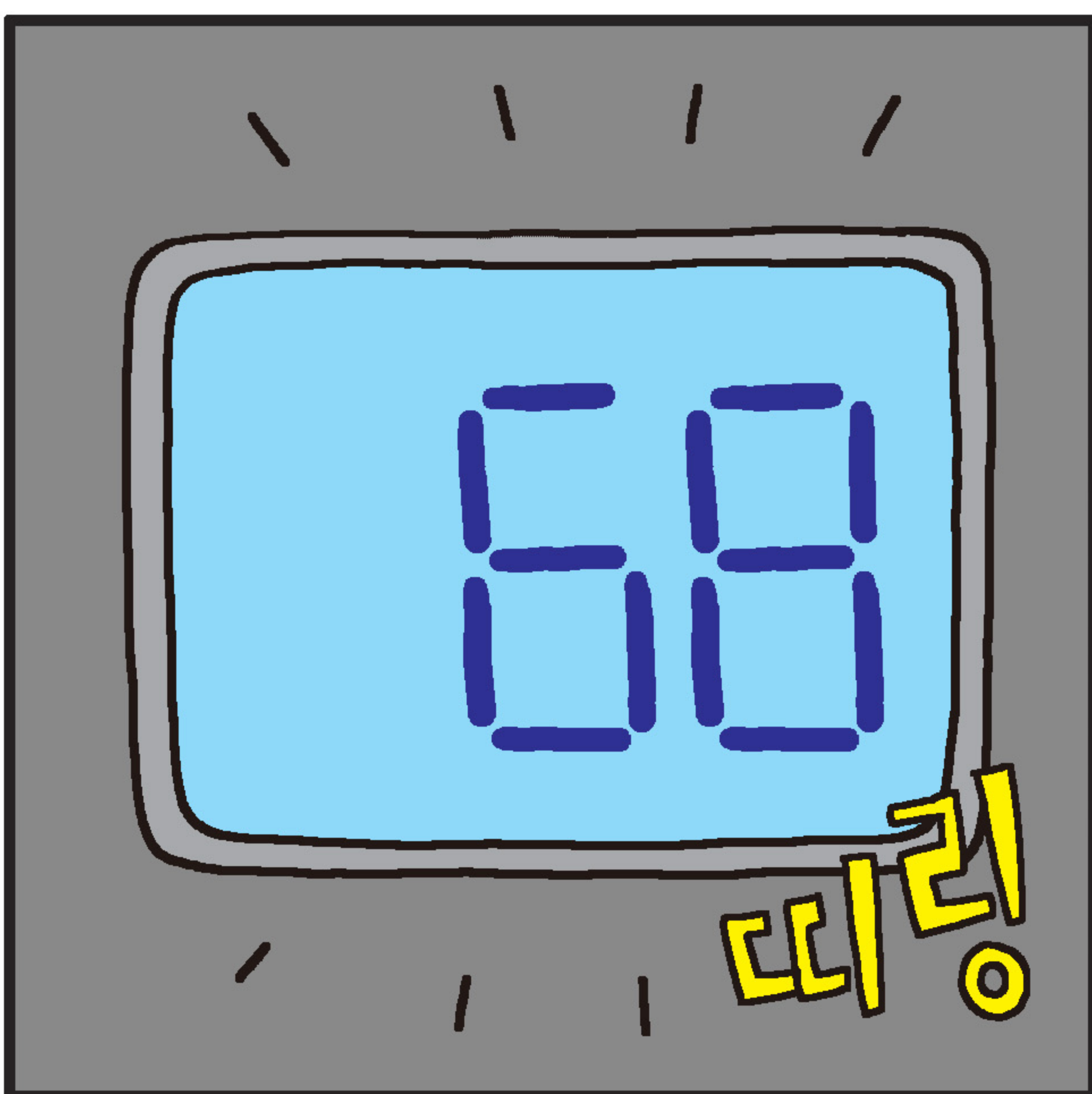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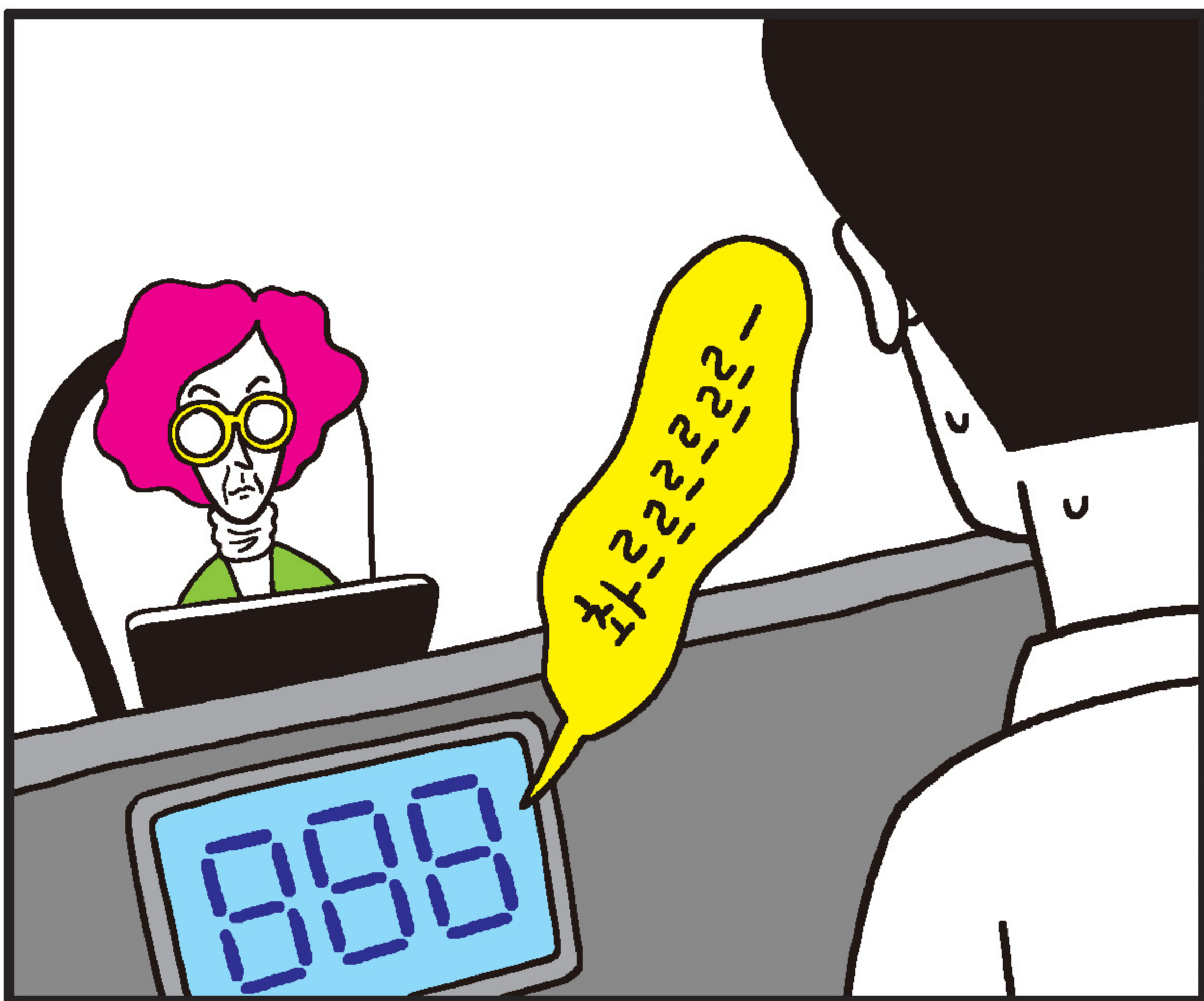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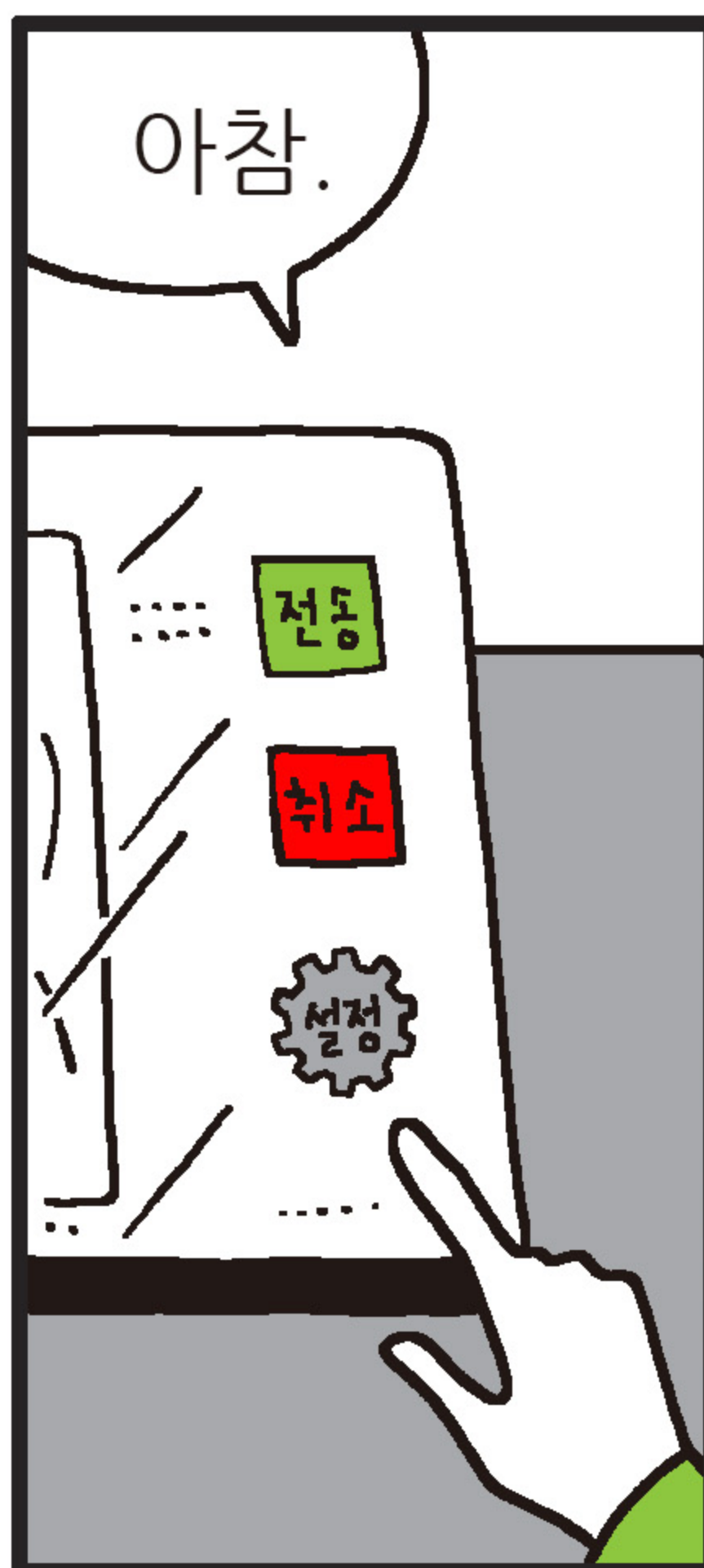












END.